

文學碩士 學位論文

皇龍寺址 出土 日暉文 막새기와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鍾 勳

2009年 12月

皇龍寺址 出土 日暉文막새기와 研究

指導教授 林 玲 愛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鍾 勳

金鍾勳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1
II.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과 명칭.....	5
III. 고려시대 日暉文 막새기와의 현황과 변천.....	18
IV. 고려시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35
1. 皇龍寺와 막새기와.....	35
2.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	45
3.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과 편년시도.....	68
V. 맺음말.....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5

〈그림 목차〉

<그림 1> 中國古代의 辟邪관련 圖像.....	6
<그림 2> 우리나라의 日暉文 관련 도상	9
<그림 3> 중국 고대 日暉文 관련 도상	10
<그림 4>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 -고구려-.....	12
<그림 5> 고구려 고분벽화 -연화문-.....	14
<그림 6> (반구형 자방) 연화문 수막새기와 -고려-.....	16
<그림 7>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 -천주충-.....	17
<그림 8> 日暉文 막새기와 각 부분 명칭.....	19
<그림 9>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지역.....	21
<그림 10> 각종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	24
<그림 11> 日暉文 암막새기와 평면형태.....	25
<그림 12> 유사양식 막새기와 I	26
<그림 13> 유사양식 막새기와Ⅱ.....	27
<그림 14> 銘文 日暉文 막새기와.....	28
<그림 15> 경주지역 사찰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현황-황룡사 제외-.....	33
<그림 16>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사원.....	34
<그림 17> 황룡사지 항공사진.....	35
<그림 18> 황룡사지 출토 신라시대 수막새 기와.....	37
<그림 19> 황룡사지 최종가람배치도.....	39
<그림 20>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장면과 폐와무지.....	40
<그림 21> 연목기와와 부연기와 노출상태-강단서편 건물지-.....	40
<그림 22>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암막새-.....	47
<그림 23>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수막새-.....	49
<그림 24>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암막새-.....	50
<그림 25>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대형수막새-.....	51
<그림 26>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소형수막새-.....	52
<그림 27>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수막새기와 -부속부 운문-.....	53
<그림 28>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평면과 단면형태-.....	56
<그림 29>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66
<그림 30>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 편년안.....	75
<그림 31> 소형 및 (부속부 운문) 日暉文 막새기와 편년안.....	77

<표 목차>

<표 1>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지역.....	22
<표 2> 신라시대 황룡사 관련 기록.....	36
<표 3> 고려시대 황룡사 증건 기록.....	38
<표 4>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41
<표 5>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암막새-.....	42
<표 6>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수막새-.....	43
<표 7>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별 출토비중-암막새-.....	46
<표 8>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별 출토비중-수막새-.....	48
<표 9> 日暉文 막새기와의 구분 기준.....	54
<표 10> 日暉文 암막새기와 형식분류표 -부속문이 있는 막새기와 제외-.....	58
<표 11>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분류 -암막새-.....	61
<표 12> 日暉文 수막새기와 형식분류표 -부속문이 있는 막새기와 제외-.....	62
<표 13>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분류 -수막새-.....	65
<표 14> 日暉文 막새기와 조합표.....	67
<표 15> 日暉文 암막새 변천과정 -대형암막새-.....	69
<표 16> 日暉文 막새기와 변천과정 모식도 -대형 암막새-.....	70
<표 17> 日暉文 암막새 변천과정 -대형수막새-.....	71
<표 18> 日暉文 막새기와 변천과정 모식도 -대형 암막새-.....	72

I. 머리말

막새기와는 목조 건물의 처마 끝에 사용되어 지붕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이 목재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건물 지붕의 외관을 치장을 하는 기능도 함께 한다. 이러한 막새기와는 지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의 기와류 가운데 가장 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기와라고 할 수 있다.¹⁾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막새기와는 樂浪기와²⁾이며 이를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製瓦術이 발전하였다.³⁾ 특히, 신라의 막새기와는 고구려, 백제와에 비교해 기와의 사용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이며 기와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확인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

신라에서 본격적인 製瓦術이 유입된 시기는 천북면 경마장예정부지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의 제작기법이 연꽃형식을 토대로 5세기 후반 또는 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신라지역 막새기와의 사용 시기를 대략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⁵⁾, 신라에 본격적인 製瓦術이 유입된 시기는 불교가 공인되어 대규모 사찰이 조영되기 시작한 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⁶⁾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막새기와가 제작되고, 양식적으로 풍부하고 화려하며 섬세하여 기와의 완성시대라고 할 만큼 동아시아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⁷⁾ 하지만 기와는 궁궐, 사원, 관청 등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9세기에 들어서 사용이 허용되는 고급 건축부재였던 것으로 보인다.⁸⁾

1) 김태근, 「여주 원향사지 출토 막새와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 1.

2) 국립중앙박물관 편, 『낙랑』, 2001, pp. 29~33.

3) 이 중 백제의 제와술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森郁夫 「日本古代의 瓦當에 보이는 韓半島의 要素」, 『한국기와의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한국기와학회, 2004.

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祗摩尼師今 11年(122年)條 “大風東來折木飛瓦”;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助賁尼師今 4年(233)條 “大風飛屋瓦”

5) 김유식, 「기와를 통해 본 신라 고구려의 대외교섭」, 『동악미술사학』 제2호, 동악미술사학회, 2001, p. 148.

6) 김성구, 「안압지 출토 고식와당의 형식적 고찰」, 『미술자료』 제29호, 1981, p.12.

7) _____, 「新羅기와의 成立과 그 變遷」 『新羅瓦磚』, 국립경주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 2000, p. 430.

이와 같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기와⁹⁾의 전통으로 신라가 패망한 이후인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도 통일신라계열의 막새기와의 영향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¹⁰⁾

하지만, 고려 초기의 막새기와는 통일신라 막새기와를 계승하면서도 오히려 퇴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고구려 계통의 막새기와가 등장하기도 한다.¹¹⁾ 특히, 고려시대 중기에 들어서면 日暉文¹²⁾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막새기와가 생겨난다. 이제까지는 日暉文 막새기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日暉文 막새기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는 추세이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경

8) 『三國史記』, 憲康王 6年條, “今之民間 履室以瓦 不以葺”

9) 막새기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막새기와 연구에 치중한 편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막새기와 대한 연구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고구려 막새기와 연구

김희찬, 「국내성 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 연구-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제19호, 2005.

백종오, 「고구려 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미술사 박사학위논문, 2005.

백제 막새기와 연구

박용진, 「백제와당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문집』 5, 1968.

송현정, 「백제 수막새의 편년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0.

김인희, 「백제 한성기의 기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한국사전공, 2002.

신라 및 통일신라 막새기와 연구

김동현 외 『신라의 기와』, 건축과 문양 (상) 한국건축사대계V, 동산문화사, 1976.

김성구, 「안압지 출토 고식와당의 소찰」, 『미술자료』 29, 국립중앙박물관, 1981.

_____ 「다경와요지출토 신라와전소고」, 『미술자료』 33, 국립중앙박물관, 1983.

_____ 「통일신라시대서조문원와당소고」,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논총발간위원회』, 1984.

_____ 「통일신라와전 연구」, 『고고미술』 162·163, 한국미술학회, 1984.

신창수,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편년」,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노윤상, 「신라시대 연화문수막새 연구-경주지역 사지출토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0) 김성구, 앞의 책, 국립경주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 2000, p. 439.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와장』, 1996.

김유식, 「井內功 기증 와전」, 『井內功 기증 와전도록』, 1990.

_____, 「한국기와의 시대별 특징」,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황희수, 『조선의 기와』, 대원사, 2000.

12) 본 논문에서는 日暉文 막새기와 이외에 귀목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日暉文 막새기와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日暉文이란 명칭에 대한 검토는 II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13) 김병희, 「안성 봉암사지 출토 고려 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태근, 「여주 원향사지 출토 막새와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은경, 「고려 와당문양의 편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정성권,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고찰」, 『문화사학』 제19호, 2003.

최문환,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호경,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중부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기도 일대의 대규모 寺址를 대상으로 막새기와의 형식 분류, 제작기법, 양식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시대 수도였으며 고려시대의 중요한 지방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¹⁴⁾ 단지 고려 말~조선 초 막새기와의 변천을 소개하면서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해 부분적으로 소개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¹⁵⁾

먼저 이와 같은 것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II장에서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해 고찰에 앞서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淵源과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고려시대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국적인 출토현황, 변천양상과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고려시대 경주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황룡사사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고려시대 황룡사에 대해 고찰해보고 발굴보고서와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진촬영과 실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하여 日暉文 막새기와의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황룡사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해

서창호, 「고려 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4) 경주지역 발굴을 통해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해서는 다음의 발굴보고서를 통해서만 알려져 있으나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룡사지』, 학술연구총서22, 199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38, 200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감은사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18, 199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학술연구총서39,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

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지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 제5책, 200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錫杖寺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4책, 1994.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198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7.

15) 서창호, 위의 논문, 2008.6. pp. 25~26.에서는 천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의 속성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분류를 근거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어떤 양식상의 변천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룡사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된 약 130년 기간동안의 편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량으로 출토된 고려시대 황룡사의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황룡사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日暉文 막새기와의 淵源과 명칭

본 장에서는 먼저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을 고대 중국과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 관련 유물의 도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귀목문, 연화문 등의 도상과 日暉文과의 연관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을 파악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각 부분의 명칭도 부여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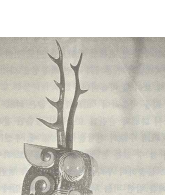
1. 鬼目文 관련 도상

먼저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은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辟邪사상에서 비롯한 소위 怪獸를 나타낸 像들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¹⁶⁾ 중국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벽사의 의미를 지닌 도상이 등장한다. 소위 怪獸文으로 통하는 이들 형상의 공통점은 정면성을 띤 좌우 대칭의 獸面像에 뿔을 표현하고 융기된 半球形의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또한 良渚文化 玉琮紋飾의 태양의 눈(해가 발산하는 氣를 나타내는 魂이 있는 눈)과 달의 눈(즉, 흰자위가 있는 눈), 商 周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四川省 광한현 삼성퇴 2호 坑에서 출토된 靑銅 人面像의 괴이하게 돌출된 눈, 무덤을 지킨다는 의미를 지닌 鎮墓獸의 크고 돌출하여 부라린 듯 한 눈 등에서 다양한 눈이 과장된 특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눈을 과장하는 경향은 모두 呪術과 辟邪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1>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중국고대의 유물 가운데 눈을 특별히 강조한 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辟邪와 관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6) 소위 怪獸文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상의 淵源에 대하여는 饕餮, 神像, 畏獸, 胡天神, 方相氏, 蚩尤神 등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 대한 정리는 이수미, 「통일신라시대 귀수문 도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5, p. 6. 참조.

17) 이수미, 앞의 논문, 2005, p. 5.

 饕餮文, 商周時代 晩期, 이수미, 「앞의 논문」 p. 86에서 재인용.	 饕餮文半圓막새, 戰國時代 燕, 이수미, 「앞의 논문」 p. 86에서 재인용	 수막새, 北魏, 洛陽城 太極殿 出土, 이수미, 「앞의 논문」, p. 100.
 수막새, 北魏 洛陽, 永寧寺 出土, 이수미, 「앞의 논문」, p. 100에서 재인용	 良渚文化 玉琮紋飾, 이성구,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 일조각, 1997. p. 81에서 재인용	 三星堆 2號坑 出土 A형 青銅人面像, 김병준, 『중국고대 지역문화와 군현지배』, 일조각, 1997. p. 83에서 재인용
 山東 後漢代의 畫像石墓 蚩尤像, 이성구, 『앞의 책』, 1997. p. 203에서 재인용	 北魏時代 문고리 장식, 5世紀, 寧夏固原博物館 所藏, James C.Y.Watt,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The ertropolitan Museum of Art and London, 2004. p. 164.	 鎮墓獸, 이성구, 『앞의 책』, 1997. p. 180에서 재인용

<그림 1> 中國古代의 辟邪관련 圖像

한편, 우리나라의 鬼目文 관련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시대의 출토유물에서 鬼目文과 관련 한 예로는 平壤 上五里 出土 지붕 마루끝기와, 平壤 상원면 청암리 출토 수막새 등이 있는데 눈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¹⁸⁾ 이들 양식은 5~6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의 후기인 북위 후기 또는 남조의 齊로부터 梁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에 원류를 둘 수 있는 것이다.¹⁹⁾

백제 지역의 귀목문과 관련한 유물로는 부여 동남리 출토 서까래기와가 있으며 주연부가 없는 方形의 안에 半球形으로 융기된 눈은 波狀形을 하고 있다. 또한 신라 시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고구려의 수막새와 같이 주연의 턱이 높고 문양이 없으며, 눈은 반구형으로 융기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둥근 점이 표현되어 있다.

統一新羅時代의 안압지 출토 금동제 문고리는 눈이 반구형으로 융기되어 눈동자 아래에는 굽은 주름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와²⁰⁾ 역시 전체적으로 양감이 풍부하고 입체적이며, 과장된 눈과 입을 통해 표현되는 강한 인상을 통하여 위압감을 표현하여 벽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²¹⁾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소위 ‘귀면와’라는 명칭은 일본인 학자들이 붙인 것으로, 막연한 의미의 귀신의 범주에서 신라의 귀면와를 중국의 蚩尤라든가 饕餮文과 관련시키려고 했으나 설득력이 없으며 무엇인지 명쾌히 밝혀진 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즉, 辟邪를 위해 죽은 사람의 魂이나 惡鬼를 의미하는 鬼의 형상인 鬼面을 지붕의 장식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²²⁾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귀면와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

18) 功, 「高句麗の 鬼面文瓦屋」, 『鬼面文瓦屋の 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1968, p. 18.

19) 이희돈, 『한국귀면와의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8.

20)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통일신라시대의 소위 귀면와(괴수문, 수면와)가 龍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용은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목조건물의 火災를 방지하기 위하여 龍面을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강우방, 「한국와당예술평서설」, 『신라와전』, 2000, p. 427)에 근거를 둔다면 日暉文이라는 용어보다는 龍目文이라고 해야 더 적절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연원에 대한 증거가 나오거나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진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확한 용어의 정립은 어려운 것으로 본다.

21) 이수미, 앞의 논문, 2005, p. 51.

22) 강우방, 앞의 책, 2000, p. 424.

시대 전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²³⁾ 이러한 고려시대 귀면와는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조형적으로 쇠퇴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鬼面瓦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

이상으로 벽사와 관련한 귀목문의 입장에서 중국고대와 우리나라의 귀목문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고대로부터 귀목에 대한 강조가 이어져 온 흔적은 발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日暉文과의 관련성은 발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의 귀면와에서는 눈에 대한 강조를 막새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퇴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3) 국립중앙박물관,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통천문화사, 2002. p. 126.

고구려	 지붕마루끝기와, 높이: 38.5cm, 평양 상오리 출토, 이수미, 「앞의 논문」, p. 105에서 재인용.  수막새, 지름: 16.0cm 두께: 3.3cm. 평양 상원면 청암리 출토, 이수미, 「앞의 논문」, p. 106에서 재인용.
백제	 서까래기와, 부여 동남리 출토,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신라 및 통일 신라	 수막새, 너비: 17.5cm, 두께: 2.1cm, 황룡사지 출토,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귀면와, 통일신라, 너비: 22.2cm, 현재높이: 19.8cm, 두께: 5.5cm, 『신라와전』, p. 341.
고려	 귀면문 수막새, 지름: 13.5cm,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p. 126.  귀면문 암막새, 너비: 21.8cm, 높이: 5.7cm, 충주 정토사지,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p. 128.

<그림 2> 우리나라의 귀목문 관련 도상

2. (半球形 子房) 연화문 막새기와 관련 도상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과 관련한 다른 예로는 막새기와 가운데 자방부가 반구형으로 나타나는 소위 ‘半球形 子房 연화문 막새기와’에서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국 고대 戰國時代의 樹木乳釘文수막새의 경우 막새의 중앙에 반구형의 자방을 두고 돌을띠가 3줄 배치되어 있다. 이 돌을띠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돌을띠는 주연부 방향으로 2줄의 선이 직선으로 뻗어 주연부의 돌을띠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같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이전 반구형의 자방에 雲氣文을 한 막새기와는 중국인들이 불교 유입 이전에 연화를 태양의 상징으로 본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또한 중국 현대의 막새기와도 막새면의 중앙에 半球形 子房을 두고 그 가장자리에 ‘雲氣文’ 또는 ‘銘文’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운기문은 연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시각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日樂富昌’銘 수막새는 중앙에 半球形 子房을 두고 2줄의 돌을띠가 있으며 3줄의 돌을띠가 막새면을 4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富貴萬歲’銘 수막새도 가운데 얇은 반구형 자방을 두고 그 주위에 1줄의 돌을띠가 있으며 부속부에는 ‘富貴萬歲’라는 吉祥句가 보인다.

한편, 돈황 막고굴의 천장벽화의 동심원문에서도 日暉文 막새기와의 親緣性을 찾아 볼 수 있다. 돈황 막고굴의 위진남북조 시대 석굴사원에서는 연화문을 동심원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특히 돈황 막고굴의 석굴사원에서는 연화문을 동심원문으로 표현한 형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이 동심원문으로 표현한 원인은 불교의 연화, 그리고 해와 달과 같은 光輝의 이미지가 공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⁵⁾ <그림 3>

24) 이경숙,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연화의 양식 특징과 상징성에 관하여」,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동양화 전공, 2005.12. p. 103.

25) 정병모, 「환문총 벽화에 그려진 동심원문의 상징과 그 의의」, 『선사와 고대』 제 23집, 2005. p. 76.

중국 고대 기와	樹木乳釘文수막새, 戰國, 지름: 16.0cm, 두께 1.5cm, 『유창종 기증 기와 · 전돌』, p. 168. 운문 수막새, 漢, 지름: 20.5cm, 두께: 1.9cm, 『유창종 기증 기와 · 전돌』, p. 192. ‘日樂富昌’銘 수막새, 漢, 지름: 14.3cm, 『유창종 기증 기와 · 전돌』, p. 198. ‘富貴萬歲’銘 수막새, 漢, 지름: 13.9cm, 두께: 2.3cm, 『유창종 기증 기와 · 전돌』, p. 201.
돈황 막고굴 천장 연화문	돈황 막고굴 435굴 천장 연화문 北魏 돈황 막고굴 288굴 천장 연화문 西魏 돈황 막고굴 390굴 천장 연화문 西周 돈황 막고굴 296굴 천장 연화문 西周

<그림 3> 중국 고대 日暉文 관련 도상

고구려에서 막새기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될 시기는 중국에서 漢이 멸망한 시기였다. 이 당시 중국은 北魏시대임에도 고구려는 그 이전의 漢代 막새기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고구려 지역의 수막새에 중국 漢代에 성행한 雲氣文 막새기와의 영향으로 보이는 반구형 자방과 구획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시대의 수막새는 백제와 신라지역 수막새와 같이 蓮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융기된 반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이 자방의 형태가 융기된 반구형으로 표현된 것은 연봉오리에서 꽃술에 쌓여 있는 자방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그림 4>

고구려 기와		
	태왕릉 출토 연화문수막새, 김희찬, 「앞의 논문」, p. 79에서 재인용	천추충 출토 연화문 수막새 지름: 17.0cm, 두께 4.1cm, 『유창종 기증·기와 전돌』, p. 14
		
	傳 평양 출토 연화문 수막새, 지름: 13.7cm,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p. 311.	인동문 수막새, 지름:14.3cm, 두께: 2.1cm, 『유창종 기증·기와 전돌』, p. 17.

<그림 4>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 -고구려-

26) 김희찬, 앞의 논문, 2005. pp. 75~76.

막새기와는 아니지만 고구려의 경우 고분 벽화에서도 日暉文과 관련하여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들이 있다. 돈황 막고굴의 천장 벽화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안악 1호분,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군, 내리 1호분에서도 동심원문을 볼 수 있다.

環紋塚에 그려진 둥근 원을 태양 또는 태양과 같은 생명에너지를 가진 연화문의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안악 1호분 천장 벽에서도 태양의 회전하는 빛살의 구조와 연화의 이미지가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그림 5>

이와 같은 동심원 형태의 環紋은 6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하는 평양 내리 1호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분 벽화의 천장부 평행고임 중앙에는 8엽의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는 二重의 동심원 형태의 환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日暉文과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심원 형태의 연화문 또는 태양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양들은 대체로 고분벽화 동심원 중앙부를 日暉文 막새기와의 日暉文 부분으로 바깥 동심원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日暉文 주변의 돌을띠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6세경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동심원문과 고려 초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日暉文 막새기와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27) 이경숙, 「앞의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 디자인학과 동양화 전공, 2005.12. p.67.

고구려 고분 벽화	집안현 환문총 -5세기 중엽- 이경숙, 「앞의 논문」, p. 37에서 재인용 평양 안악 1호분 -4세기말- 안칸 북쪽 천장 벽 이경숙, 「앞의 논문」, p. 67에서 재인용
	평양 내리 1호분 -6세기 후반- 천장부 평면연꽃 「고구려 고분벽화 연화문의 상징성 연구」 맹선영, 강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6, p. 62에서 재인용 평양 내리 1호분 환문 -천장부 부분세부-

<그림 5> 고구려 고분벽화 -연화문-

고려시대에는 日暉文 막새기와가 유행하기 이전인 고려전기(10~11세기)에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반구형 자방을 한 막새기와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⁸⁾ 고려 안학궁 출토 막새기와 같이 반구형의 자방에서 연자가 생략되고 연잎은 8엽이며 볼륨이 두텁고 끝이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고구려적인 요소로 보며, 고려 초기 막새와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²⁹⁾ 볼륨감이 약화되는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계열의 예로는 만복사 출토 수막새가 있다.

이외에 고려시대에는 고구려 계통의 연잎뿐만 아니라 괴산 외사리 출토 보상화문 수막새나 고려 궁성 출토 수막새처럼 다양한 형태의 부속문을 둔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양 구성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반구형 자방과 양식화된 연판을 통해 이후 日暉文 양식의 발생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³⁰⁾

<그림 6>

28) 김성구, 앞의 책, 대원사, 1992. p. 89.

29) 김성구, 앞의 책, 대원사, 1992. p. 81.

30) 김태근, 앞의 논문, p. 23.

물론 이들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는 日暉文 막새기와 발생이전, 이후 그리고 발생기간 동안에 출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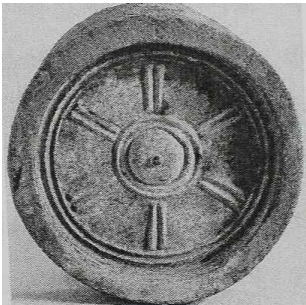
고려		
	고려 안학궁 출토 연화문 수막새 김성구, 『옛기와』, p. 80에서 재인용	만복사 출토 연화문 수막새
		
	개성 고려 궁성 출토 연화문 수막새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 p. 75.	보상화문 수막새 지름 15.5cm 두께 2.5cm 괴산 외사리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도록』, p. 121.

<그림 6> (반구형 자방) 연화문 수막새기와 -고려-

이상과 같이 반구형의 日暉文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예는 중국 고대부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日暉文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日暉文과 관련한 예가 많고 연원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시대 日暉文 막새기와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귀면와보다는 중국 고대부터 고구려에서 고려시대

로 이어지는 蓮花와 太陽을 상징하는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暉文 막새기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고구려 계통의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는 연화의 의미와 연화가 상징하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려시대에 단순하지만 강력한 느낌을 주는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왼쪽의 그림이 연화를 상징한다고 하면 오른쪽의 연판이 사라진 그림은 막새면의 중앙에 반구형의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¹⁾ <그림 7>

연판이 있는 경우	연판이 사라진 경우
	
이경숙, 「앞의 논문」, p. 70에서 재인용	

<그림 7>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와 -천추충-

결론적으로 고려시대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반구형 자방은 태양이자 연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돌을떠는 사방으로 만개하는 연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태양의 강렬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²⁾

31) 연화와 태양의 복합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이경숙, 「앞의 논문」, 2005.12 참조.

32) 이경숙, 「앞의 논문」, 2005.12. p. 69.

2. 日暉文 막새기와의 名稱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日暉文이란 용어는 기와 막새면에 반구형 돌기가 배치되어 있는 막새기와의 막새면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막새기와 전체를 지칭할 경우에는 日暉文 막새기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日暉文을 나타내는 기와 막새면의 반구형 돌기에 대한 명칭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鬼目文 또는 日暉文으로 크게 양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막새면의 반구형 돌기를 鬼目文이라 일컫는 것으로 鬼面瓦가 쇠퇴하면서 귀면의 귀목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³³⁾ 귀면와가 아닌 日暉文으로 사용하는 예로는 密敎의 영향으로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태양문인 점을 들어 日暉文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⁴⁾ 또한 日暉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밀교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적당한 용어의 확립 전에 쓰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³⁵⁾ 그리고 日暉文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연원을 11세기대의 연화문 막새의 반구형 자방의 발생에서 파생된 문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⁶⁾

앞 장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에서 살펴보았듯이 귀목문보다는 연화 또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용어보다는 日暉文 막새기와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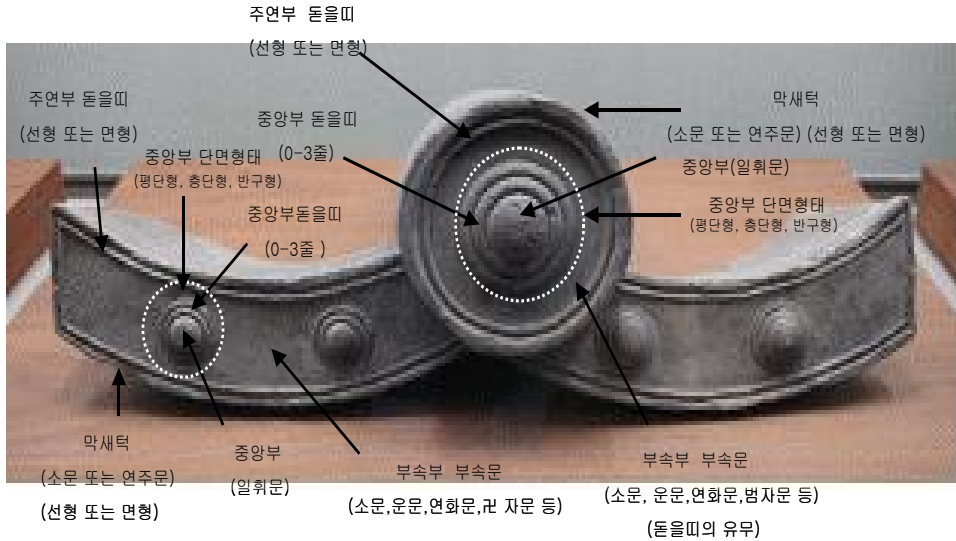
33) 이희돈, 앞의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4) 박은경, 앞의 논문, 1988.

35) 최문환, 앞의 논문, 2005. p. 3.

36) 김태근, 앞의 논문, 2003. p. 97.

37) 본 연구에서는 ‘日暉文’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된 용어 가운데 日暉文이란 용어가 연화 또는 태양의 상징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8> 日暉文 막새기와 각 부분 명칭
-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구형 자방) 막새기와에 대한 용어가 귀목문, 日暉文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각 부분의 명칭을 <그림 8>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막새기와의 각 부분의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부분의 명칭에서 반구형의 日暉文과 주변 돌을띠를 子房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³⁸⁾ 물론 日暉文이 연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면 자방부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日暉文과 그 주위의 돌을띠를 포함하여 중앙부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부 주위에 동심원 형태의 선을 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돌을띠라고 부르기로 한다.

38) 최문환, 앞의 논문, 2005. p. 5.

III. 고려시대 日暉文 막새기와의 현황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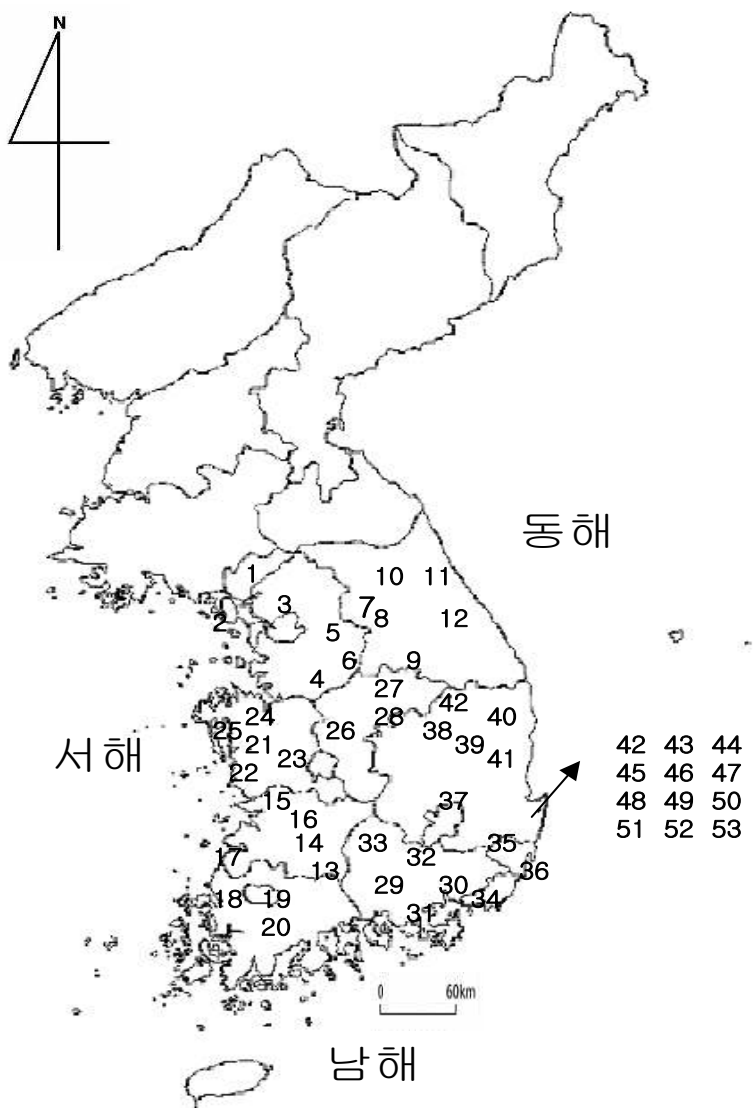
1. 전국현황

한반도에서 현재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日暉文 막새기와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출토 양상을 보이고 있다.³⁹⁾ 이것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특히 혜음원과 황룡사에서는 12세기 초로 추정되는 상당히 많은 양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되고 있다. 개성 滿月臺⁴⁰⁾, 여주 고달사지, 안성 봉업사지, 원주 법천사지, 강화 선원사지 등 왕실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찰에서도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되고 있다.

39) 이 지도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가 전국적인 출토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필자가 발굴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정확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황룡사가 위치한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의 상세한 현황은 다음 III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40) 최근 高麗 宮城인 滿月臺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고려 중기로 보이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되었지만 공반되는 유물이 청자의 경우 12세기말에서 13세기 초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日暉文 막새기와의 초기 및 연원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성의 전체에 대한 발굴이 진행된다면 日暉文 막새기와의 초기양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 2008.7.11. p. 277.



<그림 9>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지역

<표 1>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 지역

도별	출토지역
경기도	1. 개성 만월대 ⁴¹⁾ 2. 강화 선원사지 3. 파주 해음원지 4. 안성 봉업사지 5. 여주 원향사지 6. 여주 고달사지
강원도	7. 원주 거둔사지 8. 원주 구룡사지 9. 원주 법천사지 10. 인제 한계사지 11. 양양 진전사지 12. 오대산 월정사
전라도	13. 남원 실상사 14. 남원 만복사 15. 익산 미륵사지 16. 익산 사자암 17. 고창 선운사 동불암 18. 광주 원효사 19. 광주 무진고성 20. 화순 운주사
충청도	21. 부여 금강사 22. 부여 무량사 23. 공주 남혈사지 24. 당진 안국사지 25. 예산 수덕사 26. 청주 흥덕사 27. 충주 김생사지 28. 충주 숭선사지
경상남도	29. 산청 범호사지 30. 창원 봉림사지 31. 사천 본촌리 폐사지 32. 함천 영암사지 33.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34. 부산 만덕사지 35. 울주 간월사 36. 울산 운흥사지
경상북도	37. 팔공산 북지장사 38. 예천 동본리 유적 39. 안동 임하사 40. 영양 화천동 폐사지 41. 영덕 묘장사지 42. 부석사 43. 감은사지 44. 고선사지 45. 분황사 46. 굴불사지 47. 천룡사 48. 전선방사지 49. 불국사, 50. 석장사지 51. 천관사지 52. 황룡사지 53. 사천왕사지

한편 日暉文 막새기와와 관련하여 황룡사지와 해음원지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가 동일한 형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세기 예종 대에 이미 日暉文 막새기와의 표준형이 있었으며 막새기와의 제작이 國工집단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⁴²⁾ 이 견해를 받아들여 日暉文 막새기와는 궁궐이나 사찰등과 같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조영된 건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³⁾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모든 日暉文 출토 사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토되는 지역이 전국적이며 소규모 사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日暉文 막새기와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전

41) 개성 만월대를 경기도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남북분단 이전의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다.

42) 정성권, 「해음원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서울 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 2003.4, pp. 7~8.

43) 서성호,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국적으로 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10>을 참고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다. 44)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日暉文 막새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半球形의 日暉文과 함께 주변에 돌을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日暉文을 막새면의 중앙에 두고 가장자리에 1~3줄 정도의 돌을띠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돌을띠는 굵기가 서로 일정하거나, 하나는 가늘고 다른 하나는 굵게 표현하여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 부속부에는 부속문이 없는 素文과 蓮花文⁴⁵⁾, 梵字文 등 다양한 부속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46)

또한 日暉文 막새기와는 막새기와의 크기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돌을띠의 수, 막새 틀의 종류, 접합 형태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⁴⁷⁾ 그리고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日暉文 암막새기와의 평면형태에 따라 弧狀形과 滴水形으로 나눌 수 있다.⁴⁸⁾]

이와 같이 반구형의 日暉文 돌기가 主文樣인 日暉文 막새기와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징과 분류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이들 유형 외에 막새면의 중앙부, 부속부, 주연부 등의 여러 차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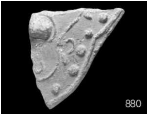
45) 소위 “귀목형 자방 연화문 막새기”를 연화문 수막새로 분류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관련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日暉文 막새기와의 분류유형에 포함하였다.

46) 박은경, 앞의 논문, 1988. 김태근, 앞의 논문, 2003 참조.

47) 최문환, 앞의 논문, 2005 참조.

48) 고려말 막새기위에 대해서는 서창호, 앞의 논문, 2007. 참조할 것.

弧狀形은 암막새의 형태가 타원형을 하는 것으로 고려 말 이전 까지 유행한 암막새 기와이며, 滴水形이란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 까지 유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역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구 분		부속문이 없는 경우	부속문이 있는 경우		
			연화문	운문 및 화문	글자가 있는 경우
弧狀形 (암막새)	돌을띠가 없는 경우	 황룡사	 분황사	 만복사	
	돌을띠가 하나인 경우	 분황사	 미륵사  만복사	 황룡사  황룡사	 미륵사  운주사
	돌을띠가 두 개인 경우	 봉업사  고려궁성	 만복사		
	돌을띠가 세 개인 경우	 황룡사			
滴水形 (암막새)		 부석사		 분황사	 수덕사

<그림 10> 각종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

弧狀形	滴水形
 미륵사 출토 日暉文 암막새기 	 부석사 출토 日暉文 암막새 기와 

<그림 11> 日暉文 암막새기와 평면형태

日暉文 막새기와의 발생지역에 대해 日暉文 막새기와의 주로 사용된 곳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된 곳은 경주(황룡사)나 파주(혜음원)지역보다는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경지역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개경지역의 고려 궁성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명확한 연원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⁹⁾ 그러나 발간보고서를 통해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고려 궁성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분석해보면 日暉文 수막새의 경우에는 日暉文에서 가까운 곳의 돌을떠는 가늘며, 바깥 쪽의 돌을떠는 굵은 막새기와의 출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日暉文 막새기와는 파주 혜음원지, 안성 봉업사지에서도 출토되어 고려시대 개경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양식의 막새기와의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4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8.7.11,



<그림 12> 유사양식 막새기와 I

둘째로 고려 궁성, 혜음원지, 황룡사지에서도 매우 유사한 수막새기와가 확인된다는 것이다.⁵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주도의 國工集團에 의해 日暉文 막새기와가 공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들 막새기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구형 日暉文을 수막새의 가운데에 두고 그 둘레에 같은 굵기로 보이는 2개의 돌을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주연부에는 1줄의 線形 돌을띠가 있으며 막새턱에는 연주문이 없으나 線形을 띠고 있는 것이다. 막새면의 크기에서도 세 지역의 日暉文 막새기와 모두 지름이 15cm 이상으로 대형막새기와에 해당한다.⁵¹⁾ <그림 13>

50) 파주 혜음원지는 『동문선』에 실려 있으며 김부식이撰한 「惠陰寺新創記」와 「甲戌年」銘 기와를 통해 1120~1122년과 1128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황룡사는 『高麗史』 世家 예종 원년(1105년)에 ‘황룡사 중건이라는 기록을 통해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생각하면 파주 혜음원지와 황룡사는 약 17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연도 차이는 거의 동일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고려궁성 日暉文 수막새는 굵은 모래가 혼합된 태토를 사용하여 회청색으로 소성하였으며, 日暉文 주변의 돌을띠와 주연부를 2줄로 표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8.7.11, pp. 111~112.

파주 혜음원지의 수막새는 중앙과 주연부의 돌을띠를 2줄로 돌렸다. 최문환, 앞의 논문, 2005. pp. 6~7. 황룡사지 출토 수막새의 경우에도 반구상의 돌기가 표현되고 중앙부와 주연부 사이에 2줄의 돌을띠가 있으며, 주연부에 굵은 돌을띠가 나타난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p. 149.

51) 발굴보고서를 통해 고려 궁성과 파주 혜음원지 수막새의 크기는 15cm이상의 대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황룡사의 경우 정확한 실측자료가 없었다. 그러나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그림13>의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를 실측한 결과 지름이 약 17cm 의 대형 막새기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유사양식 막새기와 II

물론, 단순한 형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日暉文 막새기와와 특징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지역들 간에 日暉文 막새기와를 동일 또는 유사 막새기로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많은 고고학적 발굴에 따른 자료축적과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국적인 출토양상을 보이는 日暉文 막새기와가 모두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생산 및 공급되었다고는 힘들다고 본다. 개경지역의 중요 궁궐이나 사찰에서부터 시작하여 황룡사나 혜음원과 같은 지방의 중요 사찰로 제작기술이나 인력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파경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중요 사찰을 중심으로 기와의 제작이 이루지고 지역 또는 관련 사찰로 기와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기적으로 후대의 사례이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상호부조의 형태로 불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전통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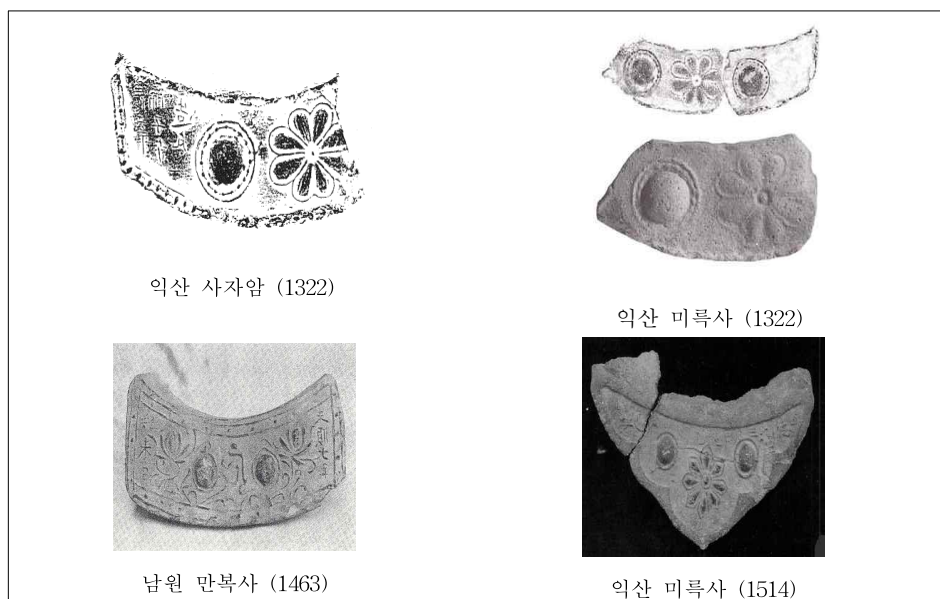
한편 고려 말~조선 초로 접어들면서 평면형태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弧狀型을 이루던 암막새의 형태가 암막새의 끝 부분이 굴곡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막새

52) 이강근, 「불국사의 불전과 18세기 후반의 재건역」,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제18집, 1997, pp. 99~100.

를滴水瓦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암막새는 원대 또는 명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면형태의 굴곡이 2회 정도 확인되는 역삼각형으로 이러한滴水瓦는 원 간섭기에 유입된 것으로 15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기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³⁾

日暉文 암막새기와는滴水型 기와의 유입으로 적수와 형태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기와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막새기와는 굴곡을 가진滴水型 막새면에日暉文을 좌우에 두고 초화문이나 범자문을 부속문양을 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작시기의 절대연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막새기와는 몇 점에 불과하다. 특히日暉文 막새기와의 발생시기인 11세기 후반~12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고려 후기인 1322년에 제작된 익산彌勒寺와獅子庵 암막새가 두 점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日暉文 막새기와는滴水瓦 형태를 띠고 있는 만복사(1463년과 1566년)와 미륵사지(1514년)에서 출토된 암막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4>



<그림 14> 銘文 日暉文 막새기와

53) 서창호, 앞의 논문, pp. 9~49.

2. 경주지역 현황

경주는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존속한 신라의 수도였으나 나라가 망하면서 한 나라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게 된다. 고려의 왕건은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이 없이 신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두 왕실은 혈연으로 얹히게 되었다. 이같은 과정에서 많은 경주출신의 귀족들은 고려의 중앙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말미암아 한국사의 주도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경주는 한 나라의 수도의 지위에서 벗어나 지방의 한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지닌 채 首都 개경에 종속되어 가는 급격한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⁵⁴⁾ 신라를 경주로 고쳤다는 기록은 이제 경주는 한 나라의 수도에서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의 하부단위인 군현조직체계의 한 단위에 지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⁵⁾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려의 건국 후 신라계의 세력은 고려 지배층으로 살아남음으로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사상적 근거지인 경주 지역 사찰의 유지와 존속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기록을 통하여 고려시대 경주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寺勢가 유지될 수 있었던 사찰로는 在京 不在地主와 연결된 사찰⁵⁶⁾, 태조 왕건과 연결된 사찰⁵⁷⁾, 祖宗時 開創 裨補寺社, 古來定行法

54) 김호동, 「나말라초 변혁기의 경주지역」, 『경주사학』 제16집 1997년.

55) 『三國遺事』 卷 2, “金傳大王. 新羅를 고쳐 慶州라 하고 公의 食邑으로 삼았다”
『高麗史』 卷 75, 찬거 3. 事審官. “태조 18년에 新羅王 金傳가 내항하였으므로 新羅國을 없애고 경주로 삼아 傳로 하여금 本州의 事審을 삼아 副戶長이하 官職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56) 『三國遺事』 卷3, 塔像4, 天龍寺. “東都의 南山 동쪽에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鄉俗에서는 高位山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절이 있으니 속칭 高寺, 혹은 天龍寺라고 한다. (중략) 衆生寺의 大聖이 젓 먹여 기른 崔殷誠이 아들 承魯를 낳고 魯가 肅을 낳고 肅이 侍中 齊顏을 낳았는데 齊顏이 이 절을 重修하여 廢寺를 일으키고 釋迦萬日道場을 두고 朝旨를 받았으며 兼하여 信書願文까지 절에 남겨 두었다”

『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 衆生寺. “羅末 天成(거란 聖宗의 연호) 연간(926~930에 正甫 崔殷誠이 늙도록 아들이 없어 이 절(衆生寺)의 부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중략) 殷誠은 敬順王을 따라 我朝(高麗)에 들어와 大聖이 되었다.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有德寺. “신라의 大夫 角干 崔有德이 사재를 喜捨하여 절을 만들어 有德(寺)이라고 이름하였다. 遠孫 三韓功臣 崔彥攝가 眞影을 걸어 안치하고 이어 碑를 세웠다”

57)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寶壤梨木. “新羅時代 이래 當郡(청도군)의 寺刹과 鵲岬이하 中小寺刹이 三國亂亡간에 大鵲岬 小鵲岬 所寶岬 天門岬 嘉西岬 등 五岬의 사찰이 모두 없어지고 五岬의 기둥을 합하여 大鵲岬寺에 두었다. (중략) 얼마 안 되어 太祖가 삼국을 통일하여 祖師가 이곳에 절을 있다는 말을 듣고 五岬

席寺院, 別祈恩寺社⁵⁸⁾ 등 ‘裨補寺社’의 역할⁵⁹⁾을 하여 유지되어온 사찰 사천왕사, 황룡사와 같은 호국사찰을 들 수 있다. 四天王寺의 경우 고려 文宗 28년(1074)에 신라시대와 같이 文豆婁道場⁶⁰⁾을 행하였으며, 황룡사 역시 국가 차원에서 중건⁶¹⁾을 한 것은 裨補寺社의 역할 뿐만 아니라 對民敎化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경주지역 사찰의 위축은 고려 중기인 무신집권기에 경주지역 출신의 이의민이 세력가로 등장하는 시기까지는 사찰의 명맥이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⁶²⁾ 그러나 이의민의 살해, 경주지역에 발생한 신라부흥 운동의 실패, 知慶州事로의 강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주지역 사찰의 위축은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할 수 있다.⁶³⁾ 더욱이 경주지역 사찰의 쇠락과 폐사는 몽골의 침입으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황룡사가 高宗 25년(1238)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는 元 간섭기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의 田 500結을 합해서 이 절에 納하였다. 淸泰 4年 丁酉에 賜額하여 雲門禪寺라 하여 袞裘의 靈蔭을 받게 하였다”

58) 『高麗史』 卷6, 世家 6, 靖宗 12年 12月. “국가에서는 7일간이나 계속하여 祈祥迎福道場을 外帝釋院에 설치하고 문무백관들은 興國寺에서, 東京, 西京, 및 4도호부 8목들에서는 각각 소재지의 사찰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김정은, 『고려시기 경주지역 사원의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 27에서는 “祈祥迎福道場을 설치한 東京의 寺刹은 國王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別祈恩寺社로 본다”

59) 『高麗史』 卷 18, 世家 18, 睿宗 22年 3月. “凡祖宗時開倉裨補寺社 及古來定行法席寺院 與別祈恩寺社 如有殘弊 主掌官隨卽修葺”
김정은, 『고려시기 경주지역 사원의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27.에서는 “祖宗時 開倉裨補寺社는 고려 태조 시에 개창되었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공인 받은 사찰로 國祖 및 州縣裨補寺社가 있으며, 古來定行法席寺院은 古來로부터 정기적인 法會를 개설하였던 사찰, 別祈恩寺社는 각 郡邑마다 ‘祈恩’을 하기 위한 사찰을 말한다”고 하였다.

60)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8年 7月. “文豆婁道場을 東京 四天王寺에 설치하고 27일 간에 걸쳐 蕃兵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61) 황룡사에 대한 내용은 IV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하며 황룡사의 重建에 대한 대표적인 文獻記錄으로는 다음의 기록이 대표적이다. 『高麗史』 卷 12, 世家 12, 睿宗 元年 3月. “東京의 皇龍寺를 수리하고 상서 金漢忠을 보내어 落成式을 거행하게 하였다” .

62) 신수정, 「이의민의 출신배경과 그 과정」, 『사학연구』 제74집, 2004.

63)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20년(1190년). “春 正月 東京에 도적이 일어났다., (東京에) 使臣을 보내어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였다”
『高麗史』 57 地理2, 東京留守官
“神宗 5년(1202년) 東京 夜別抄가 난을 일으켜 州郡을 치고 위협하므로 군사를 보내어 討平하였다”
“神宗 7년(1204년) 東京(人)이 新羅를 부흥시킨다는 말을 만들어 尙州, 淸州, 忠州, 原州道에 檄文을 전하고 亂을 꾀하였으므로 知慶州事로 降等하였다”

한편 경주지역의 사찰들이 고려시대에 존립하였다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感恩寺는 고려 忠肅王 3년인 至正 11年(1351) 靑銅반자가 출토되었다.⁶⁴⁾

高仙寺址는 고려사 현종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⁶⁵⁾

堀佛寺址는 東寺라고 새겨진 銘文平瓦片이 고려전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金나라 世宗 完顔雍(完顏雍)의 연호 大定(1161~1189)을 사용한 대정 23년명(서기1183) 靑銅반자가 있다.⁶⁶⁾

錫杖寺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土器 15개체, 靑瓷 5개체, 黑釉瓷器 2개체가 보고되었다.⁶⁷⁾

天官寺는 東京雜記에 고려의 문인 이공승(1099~1183)이 天官寺를 지나면서 지은 시 ‘절 이름 天官은 옛 사연이 있는데, 홀연히 그 유래를 들으니 처연하다(이하생략)’ ⁶⁸⁾

天龍寺址는 신라 崔承魯의 손자인 崔齊顔이 高麗 靖宗 7年(1040) 重修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시대의 靑瓷片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⁶⁹⁾

문헌기록과 아울러 발굴조사에서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찰은 감은사지, 고선사지, 분황사, 굴불사지, 배리 선방사, 불국사, 석장사지, 황룡사지, 천관사지, 사천왕사지, 천룡사지로 11곳에 이른다. 경주 남산일대의 사찰들에서도 日暉文 막새기와가 소량이지만 확인되고 있으며 안압지에서도 日暉文 막새기와가 확인되고 있다. ⁷⁰⁾

다음 IV장에서 살펴볼 황룡사를 제외한 경주지역 사찰들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들을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다.

먼저 분황사에서 출토된 日暉文 암막새기와는 2종류, 日暉文 주위에

6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1997. p.198.

65) 『高麗史 4』, 顯宗 12年 5月 戊子. “상서좌승 李可道에게 명하여 慶州 高仙寺에 있는 金羅袈裟, 佛頂骨과 昌林寺에 있는 佛牙를 가져다가 內殿에 두게 하였다”

66)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앞의 책, 1986. p. 171~172.

6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앞의 책, 1994. p. 100.

6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4. p. 23.

69) _____, 앞의 책, 1998. p 22.

70) 고려시대 경주 남산 일대 사찰에 대한 것으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경주시, 『경주남산 정밀학술보고서』,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안압지에서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1978. p. 158과. p.164에서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화문이 있는 3종류가 있으며 출토수량은 6점이다. <분황사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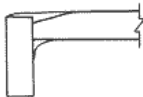
분황사에서는 日暉文 수막새기와도 약 30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분황사 ⑥>과 같이 日暉文 주변에 돌을띠가 있는 것이 5종류 8점, <분황사 ⑦>과 같이 日暉文 주변에 단판의 연화문이 있는 것이 5종류 2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분황사에서는 <분황사 ⑧>과 같이 반구형의 日暉文 주변에 초화문을 배치한 수막새기와도 1점이 출토되었다.

석장사지 日暉文 막새기와는 日暉文 암막새가 2종류, 日暉文 수막새는 1종류가 출토되었다. <석장사 ①~석장사 ③> 이 가운데 <석장사 ①>은 막새면의 중앙부에 日暉文이 있고 그 주위에 돌을띠가 여러 개 있으며 주연부에도 선형의 돌을띠가 있다. 이에 반해 <석장사 ②>는 막새면 日暉文 주위에 넝쿨무늬가 있으며,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있어 <석장사 ①>과는 차이를 보인다. 日暉文 수막새는 <석장사 ③>과 같이 日暉文 주변에 한 줄의 돌을띠를 두고 부속부와 주연부에 각각 한줄 씩의 커다란 돌을띠가 있으며 지름이 10.5cm로 소형인 것이 유일하다.

천룡사지 막새기wa에서는 거의 동일한 양식의 日暉文 막새기wa에서 양식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천룡사 ①~②> 이것은 日暉文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日暉文 막새기wa를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천룡사 ②>는 막새기wa의 접합면이 直角이 아닌 鈍角을 이루어 시기적으로 제작기법이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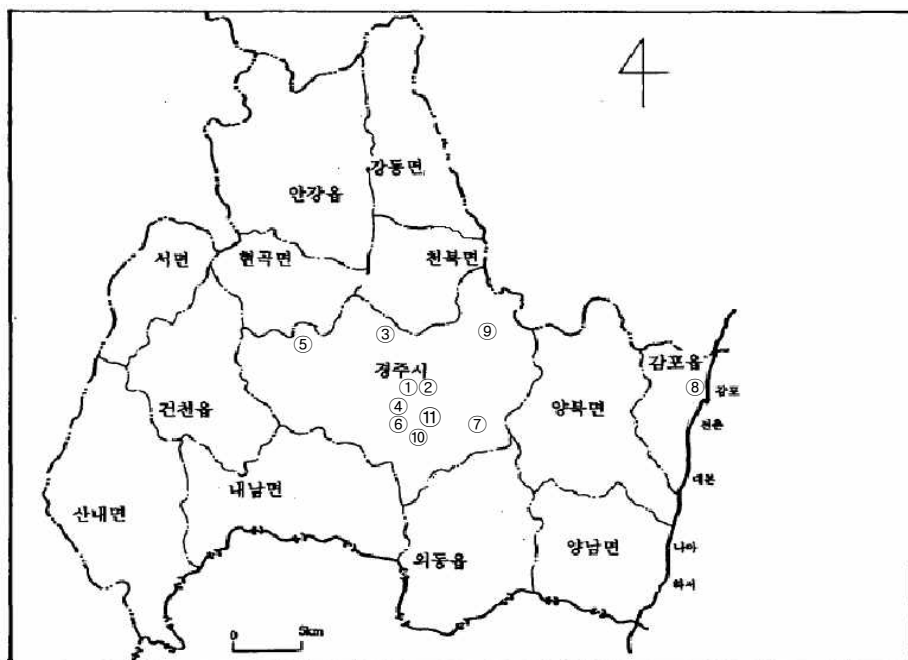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굴불사에서는 황룡사 출토품과 유사한 부속부에 운문이 있는 <굴불사 ②> 日暉文 막새기wa가 주목되며, 불국사에서는 <불국사 ③>과 같이 부속부에 마름모 형태의 퇴화된 막새기wa가 특색이 있다. 또한 감은사지에서는 암막새의 부속부에 물결무늬와 막새면에 卍자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경주지역의 사찰들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wa는 고려시대 기와연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토량이 적어 개별 사찰들의 日暉文 막새기wa를 충분히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wa는 출토량이 방대하여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wa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찰명	도판				
분황사					
	분황사 ①	분황사 ②	분황사 ③	분황사 ④	
					
	분황사 ⑤	분황사 ⑥	분황사 ⑦	분황사 ⑧	
석장사					
	석장사 ①	석장사 ②	석장사 ③		
불국사					
	불국사 ①	불국사 ②	불국사 ③	불국사 ④	
감은사					
	감은사 ①	감은사 ②	감은사 ③		
천룡사					
	천룡사 ①	천룡사 ① -접합면-	천룡사 ②	천룡사 ② -접합면-	
굴불사			천관사		
	굴불사 ①	굴불사 ②		천관사 ①	천관사 ②
고선사			사천왕사		
	고선사 ①	고선사 ②		사천왕사	

<그림 15> 경주지역 사찰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현황 -황룡사 제외-

<그림 16>은 이들 사찰들의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토된 경주지역의 사찰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⁷¹⁾ 이 지도를 통해 전체적으로 경주지역 사찰 가운데 감은사를 제외하고는 경주시내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신라시대에 비해 고려시대에는 경주지역의 위상이 낮아짐에 따라 불교 사찰에 대한 지원 또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사찰이 쇠락하거나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경주 시내 지역 사찰은 국가나 유력세력 등에 의해 관리와 유지가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다수가 존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① 황룡사 ② 분황사 ③ 굴불사 ④ 천관사 ⑤ 석장사 ⑥ 선방사 ⑦ 불국사 ⑧ 감은사
⑨ 고선사 ⑩ 천룡사 ⑪ 사천왕사

<그림 16> 경주지역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 사찰

71) 日暉文 막새기와가 소규모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남산지역의 소규모 사찰은 지도의 표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Ⅳ. 高麗時代 皇龍寺址 出土 日暉文 막새기와

1. 皇龍寺와 막새기와



<그림 17> 황룡사지 항공사진

황룡사는 <그림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주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신라시대 창건이후 고려시대 까지 중요한 사찰로 인식되어 왔다. 먼저 신라시대의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들 문헌기록에 의하면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27년(556),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흥왕 30년(569)에 墻宇를 두르기 시작한지 17년 만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진흥왕 35년(574)에 丈六尊像이 鑄成되고, 진평왕 6년(584)에 金堂이 조성되고, 선덕왕 14년(645)에 9층 목탑이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13년(754)에는 황룡사종이 鑄成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鐘樓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신라시대 황룡사 관련 기록>

眞興王 14年 (553)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 皇龍 황룡사 창건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眞興王條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皇龍寺 황룡사 창건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丈六條
眞興王 27年 (556)	二十七年春二月 ... 皇龍寺畢功 창건가람 완공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眞興王條
眞興王 30年 (569)	周圍墻宇 至十七年 方畢 창건가람 완공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丈六條
眞興王 35年 (574)	鑄成丈六尊像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丈六條
眞平王 6年 (584)	眞平王五(六年) 甲辰 金堂造成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丈六條
善德王 14年 (645)	善德王代 貞觀十九年乙巳 塔初成 皇龍寺九層木塔完工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九層木塔條
景德王 13年 (754)	皇龍寺鐘 鑄造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4 皇龍寺丈六條

황룡사의 막새기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폐와무지 출토 막새기와를 정리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의하면 <그림 18>에서 보는 것처럼 6세기 전반 황룡사의 창건가람에서는 고구려적인 요소가 강한 막새기와가 확인되고 있다. 중건가람(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서는 백제의 영향에 고구려적인 요소가 나타나며 중건가람이 완성되는 7세기 중엽에는 신라의 독창적인 기와제작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세기 초기(754년 이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의 기와제조기술이 융합되고 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신라의 독창적인 통일기 양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⁷²⁾

72) 신창수,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편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미술사전공, 1986.

고구려계 수막새 -6세기 전반-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연화문 수막새, 지름 17.9cm 두께 1.7cm, 『신라와전』, p. 96.	 연화문 수막새, 현재길이 19.1cm 두께 1.9cm, 『신라와전』, p. 98.
백제계 수막새-삼국 말~통일 초	통일신라 - 8세기 중엽 이후-
 연화문 수막새, 지름 14.5cm 두께 1.5cm, 『신라와전』, p.103.	 연화문 수막새, 지름 15.4cm 두께 1.8cm, 『신라와전』, p. 109.

<그림 18> 황룡사지 출토 신라시대 수막새기와

한편 고려시대 황룡사의 중건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의 패망이후에도 지속으로 이루어진다. 신라시대 왕권강화를 위해 황룡사가 건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중앙정부는 황룡사를 호국과 왕권을 상징하는 사찰로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⁷³⁾

73) 고려시대 중앙정부가 경주지역과 황룡사를 보는 시각으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표 3> 고려시대 황룡사 중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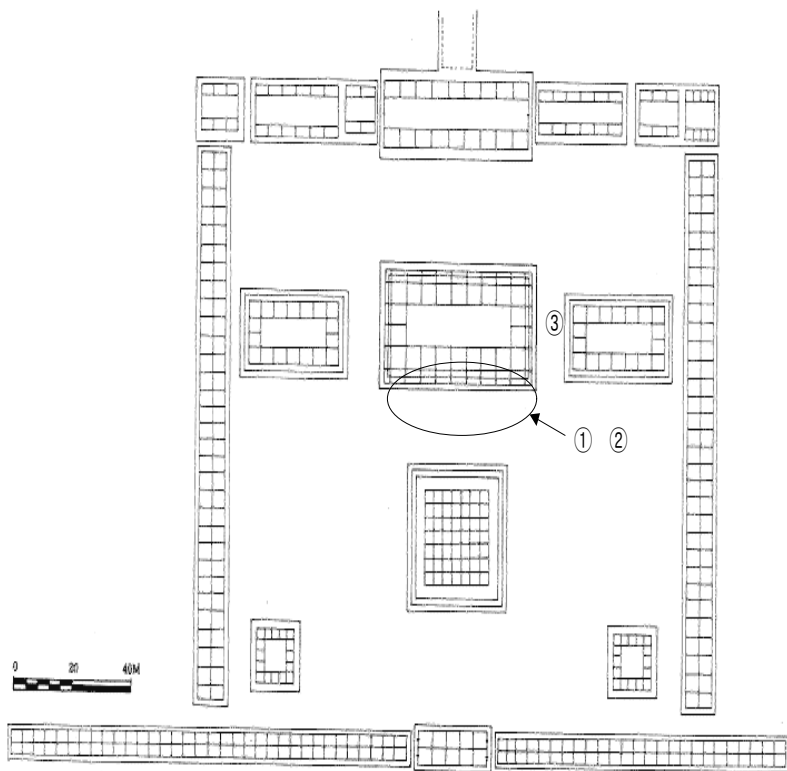
顯宗13(1021)	皇龍寺九層木塔 重建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條
文宗18(1064)	皇龍寺九層木塔 重建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條
肅宗元年(1096)	皇龍寺九層木塔 重建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條
睿宗元年(1105)	皇龍寺 落成	高麗寺 世家 睿宗 元年條
高宗25(1238)	皇龍寺 燒失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丈六條

고려시대 황룡사의 重建은 현종~예종(11세기 초에서 12세기 초)에 걸쳐 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2세기 초(1105) 이후부터 황룡사가 소실되는 13세기 초(1238)의 고종 때까지 약 133년 동안에는 황룡사 중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최종 가람이 어느 시기에 완성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신라 경문왕 13년(873)에 구층 목탑이 새로 중건된 시기와 고려 예종 원년(1105)에 황룡사에 상서 김한충을 파견하여 낙성했던 시기 사이에 이러한 개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⁷⁴⁾ 그 이후 고려시대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238년 몽고군에 의해 燒失될 때 까지 <그림19>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⁷⁵⁾

변상희, 『고려 현종대 불교계의 변화와 그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년, p. 43.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황룡사 구층 목탑이 갖는 호국적 성격과 아울러 경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정신, 「고려시대 경주민의 항쟁과 제사」, 『신라문화』 제 32집, p. 51.에서는 신라의 朝遊宮을 헐어 황룡사탑을 보수한 것은 경주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것으로 신라의 핏줄이라고 기대하던 현종대의 일이어서 더 실망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74) 신창수, 「고고학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술연구 심포지엄 논문집 황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pp. 16~17.

7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그림 19> 황룡사 최종가람배치도



<그림 20> 日暉文 막새기와 출토장면과 폐와무지

황룡사지 발굴조사에서 <그림 20>과 같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 지점을 <그림 19>에 표시하면 ①~③으로 표시할 수 있다.⁷⁶⁾



<그림 21>
연목와와 부연와 노출상태
-강단서편 건물지-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그림 21>과 같이 황룡사에 위치한 10여 곳의 폐와 무지 가운데 椽木瓦 형태의 日暉文 막새기와 등이 20여점이 파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출토된 것이다.⁷⁷⁾ 이로 미루어보아 이 폐와무지는 후대에 민가의 조성을 등을 위해 조성된 다른 폐와무지들과는 달리 황룡사의 중건시 사용되고 남은 것을 폐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황룡사지에서는 발굴조사로 3만 여점의 다양환 瓦塼類가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8차에 걸친 황룡사지 발굴에 따

76) 이들 日暉文 막새기와는 교란층과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어 막새기와가 사용된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막새기와 모두 금당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출토된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 고려 시대 황룡사 금당에서 사용된 막새기와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7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p. 124.

른 보고서에서는 回廊內廊地域⁷⁸⁾에서 출토된 瓦塼만을 소개하고 있다.

황룡사지는 일부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寺域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민가와 경작지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황룡사지는 교란이 심하여 이곳에서 출토된 방대한 양의 瓦塼類를 출토지역별로 層位를 가려 시대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막새기와의 문양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⁷⁹⁾

<표 4>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암막새	日暉文	唐草文	草花文	花鳥文	麒麟文	龍文	鬼面文	飛天文	기타
145종 3,899점 (100%)	33종 1,968점 (50.4%)	74종 1,205점 (30.9%)	18종 615점 (15.77%)	7종 28점 (0.7%)	28점 (0.7%)	22점 (0.5%)	19점 (0.48%)	3종 3점 (0.07%)	11점 (0.28)
수막새	日暉文 80)	蓮花文	寶相華文	鬼面文	迦陵頻 伽文	獅子文	花鳥文	기타	
278종 4,949점 (100%)	34종 986점 (19.9%)	216종 3,573점 (72.1%)	20종 95점 (1.9%)	3종 216점 (4.3%)	2종 12점 (0.24%)	2종 37점 (0.74%)	4점 (0.08%)	26점 (0.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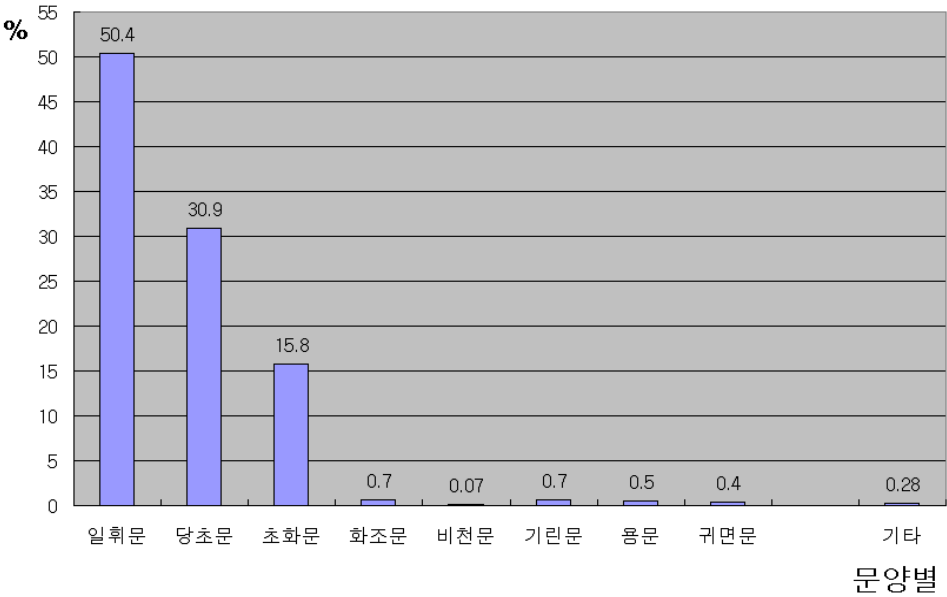
78) 回廊內廊地域에서 출토된 瓦塼類는 총 9,765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암막새가 145種 3,899점, 수막새가 278種 4,949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回廊外廊地域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면 황룡사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984. p. 125.

8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984. p.149에서는 출토된 日暉文 1,012점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日暉文 수막새 기와 전체를 합하면 986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986점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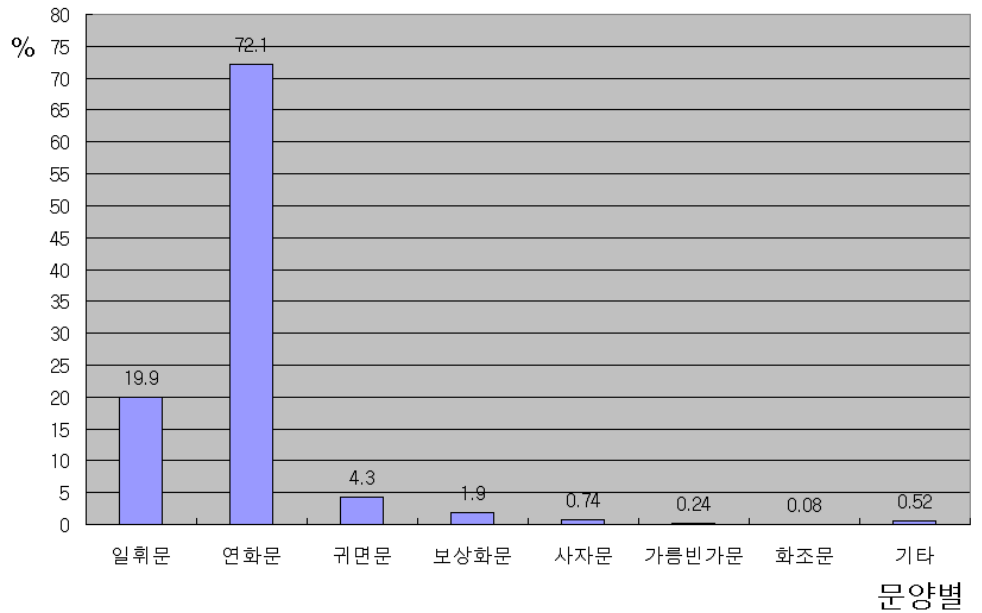
<표 4>와 같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는 <표 5>와 <표 6>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가운데 암막새의 문양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출토 암막새가 145종 3,899점으로 이 가운데 日暉文 막새기와가 33종 1,968점이 출토되었다. 암막새 전체 유형에서는 145종 가운데 33종으로 22.7%, 출토량에서는 3,899점 가운데 1,968점으로 50.4%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 암막새 -



한편 수막새의 문양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수막새 287종, 4,949점 가운데 日暉文 막새기와의 차지하는 비중이34종, 986점을 차지하여 각각 12.2%, 1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연화문 막새기와 216종(77.6%) 3,573점(72.1%)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 수막새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는 암·수막새기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같이 日暉文 막새기와가 출토 비중과 숫자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

먼저 황룡사가 폐사된 이후 민가가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유실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편으로 출토된 막새들이 많아 정확한 출토량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암막새의 경우 수막새에 비해 너비가 길어 하나의 막새가 여러 개의 파편으로 나뉘어져 정확한 출토량에 산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日暉文 막새기와는 다른 막새기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황룡사에서는 사찰 건물에 대한 꾸준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사에서 출토된 막새기와 가운데 日暉文 막새기와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룡사 발굴 보고서의 日暉文 막새기와의에 대한 유형분류를 암·수막새 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유형분류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암막새기와는 총 33종 1,968점이 수습되어 암막새기와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日暉文 막새기와는 반구형 돌기가 2개 또는 3개씩 배치한 것이 주류를 차지하지만 복합되는 문양과 돌기의 크기와 형태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¹⁾

日暉文 암막새를 A ~ H형 및 기타를 합하여 총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출토 수량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日暉文 암막새 기와를 각 유형별로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이 가운데 황룡사에서 출토된 日暉文 암막새 기와 가운데 日暉文 C형은 6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⁸²⁾ 이 막새기와는 황룡사지의 소실 이후 유실 등으로 황룡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었을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고려시대 황룡사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지붕의 修葺에 사용된 日暉文 막새기와의로 추정할 수 있다.

8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p. 132~133.

8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984. p.132~133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日暉文 A형(1종): 당초문과 복합을 이룬 유형으로 1단의 얇은 굴곡을 둔 돌기를 좌우에 2개를 배치하고 공간은 굽게 부조적으로 표현한 당초줄기를 넣었으며, 출토수량: 62점

日暉文 B형(4종): 막새면 좌우에 배치된 돌기 사이에 운문을 시문한 유형으로 돌기와 운문의 형태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임. 출토수량: 164점

日暉文 C형(5종): 넓은 막새면에 2단의 굴곡을 두어 만든 반구형의 돌기를 2개씩 배치한 것. 출토수량: 1,308점

日暉文 D형(2종): 돌기가 4단으로 높게 표현되고 있으나 C유형에 비해 매끄럽지 못하며 주연형태와 접합수법은 동일함. 출토수량: 193점

日暉文 E형(3종): 막새면에 배치된 2개씩의 돌기가 2단으로 굽적하게 표현. 출토수량: 9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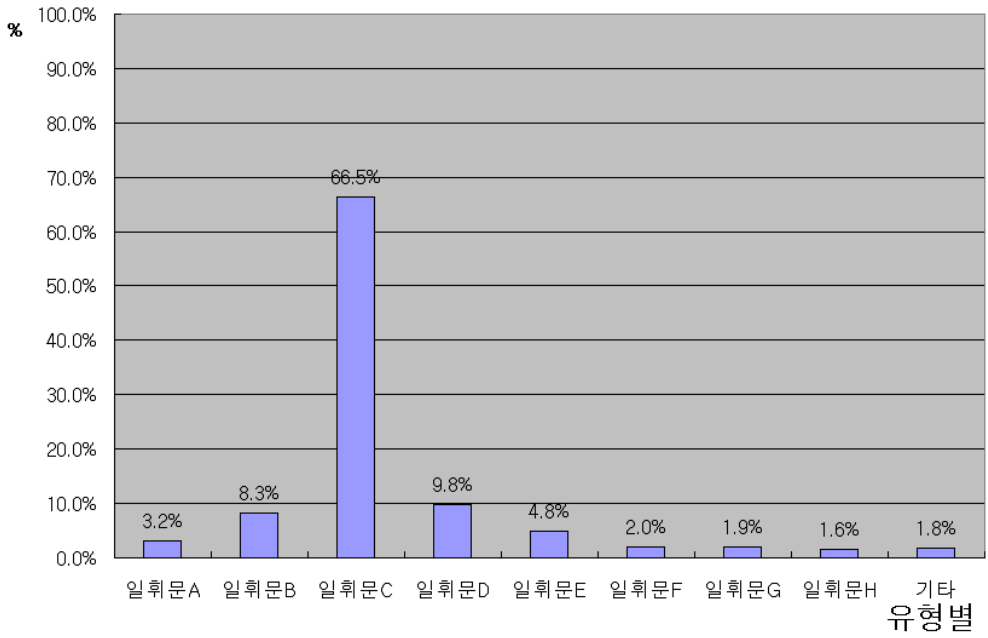
日暉文 F형(3종): 낮게 융기된 돌기가 배치된 것으로 사주에 턱을 두어 주연을 만들고 있는데 좁은 주연에 굽은 주문을 배열. 출토수량: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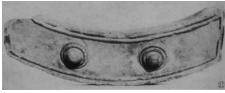
日暉文 G형(3종): 좁은 막새면에 작은 돌기를 배치한 소형화당. 출토수량: 38점

日暉文 H형(1종): 2조의 굽은 돌선으로 처리한 주연부 내측에 3 단으로 표현된 3개의 소형돌기가 배치된 것으로 3개의 돌기가 장식된 유일한 예. 출토수량: 31점

기타(12종): 日暉文이 표현된 소형막새 기와편. 37점

<표 7>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별 출토비중-암막새-



日暉文 A형(1종)	日暉文 B형(4종)	日暉文 C형(5종)	日暉文D형(2종)
 출토수량 62점	 출토수량 164점	 출토수량 1,308점	 출토수량 193점
日暉文 E형(3종)	日暉文F형(3종)	日暉文 G형(3종)	日暉文 H형(1종)
 출토수량 95점	 출토수량 40점	 출토수량 38점	 출토수량 31점
기타(11종) 출토수량 37점			
			

<그림 22>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암막새-

황룡사 출토 日暉文 수막새기와는 日暉文 형태의 반구형 돌기가 배치된 것으로 중앙의 日暉文과 그 주위의 부속부에 배치된 돌을띠의 크기에 따라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들은 대체로 건물지 기단주변의 교란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총 30종 986점이 수습되었다.⁸³⁾

日暉文 수막새를 A ~ G형으로 총 7개의 유형으로 구분⁸⁴⁾하여 출토

8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p. 149.

한편 황룡사 막새기와의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토 막새기와의 대부분이 층위를 확인할 수 없는 교란층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는 것이다. 황룡사 막새기와의 연구에서는 층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출토 막새기와의 문양을 바탕으로 양식변천과 편년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8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984. p.149~150에서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日暉文 A형: 중앙에 높게 돌출된 돌기 주위에 1줄의 돌을띠가 둘러지고 주변부 내측에 운문이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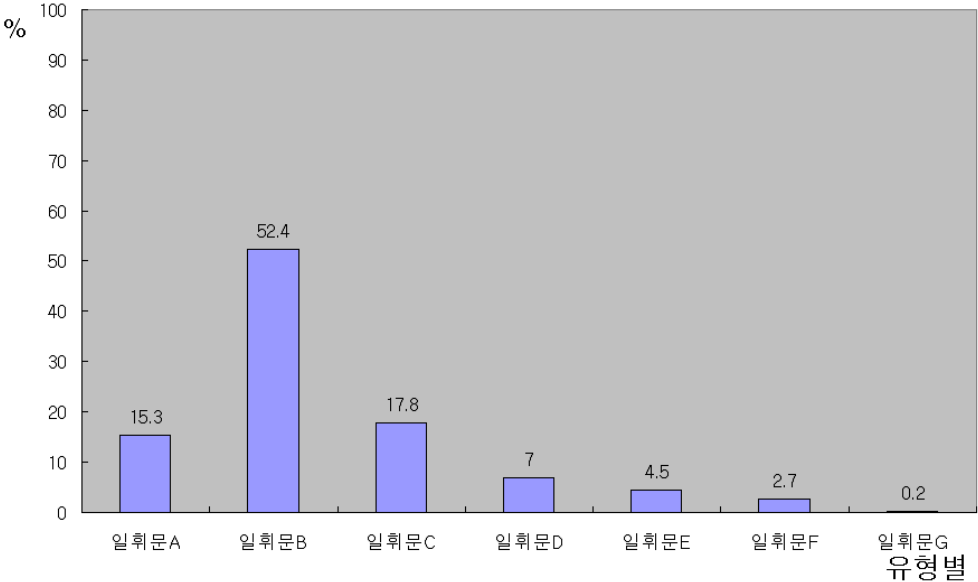
출토수량: 151점

日暉文 B형: 반구상의 돌기가 3단으로 표현되고 주변부 내측에 태선의 돌을띠를 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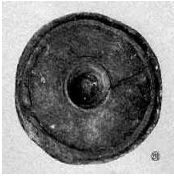
수량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의 경우에는 암막새보다는 유형별 출토량에 따른 차이가 크게 보이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日暉文의 표현이 정제되어 있는 日暉文 B형이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日暉文 수막새 기와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과 출토량을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다.

<표 8>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별 출토비중-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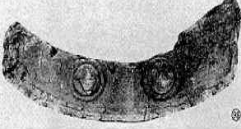


- 돌기의 표현이 정제되었으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는 유형. 출토수량: 517점
- 日暉文 C형: B유형과 동일한 양식의 돌기가 배치되고 있으나 주연부 내측에 장식되었던 돌을띠가 대부분 생략되었으며, 대체로 돌기가 큼. 출토수량: 176점
- 日暉文 D형: 작아진 돌기가 2단 또는 3단으로 표현되고 주연부 내측에 1~2줄의 돌을띠가 장식. 출토수량: 69점
- 日暉文 E형: 3단으로 높게 표현된 소형의 돌기가 장식되고 막새면이 낮게 융기되면서 주연부와 사이에 구상권대가 있음. 출토수량: 44점
- 日暉文 F형: 비교적 작은 돌기가 2단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제되지 못한 퇴화된 모습. 출토수량: 27점
- 日暉文 G형: 지름이 13cm인 소형막새로 약간 타원상을 이룬 막새면에 2단으로 표현된 돌기와 8개의 관형돌기를 배치. 출토수량: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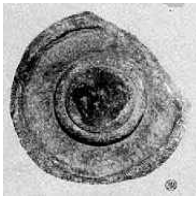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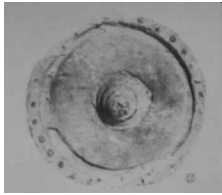
日暉文 A형(5종)	日暉文 B형(5종)	日暉文 C형(6종)	日暉文D형(6종)
			
출토수량 151점	출토수량 517점	출토수량 176점	출토수량 69점
日暉文 E형(3종)	日暉文F형(4종)	日暉文 G형(1종)	
			
출토수량 44점	출토수량 27점	출토수량 2점	

<그림 23>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수막새-

한편, 황룡사에서 출토된 발굴보고서에 의하여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보존상태가 양호한 막새기와들은 <그림24~그림27>과 같다. 현재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는 대부분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직접 국립경주박물관의 유물을 직접 열람하고 사진촬영과 함께 실측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막새기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日暉文 막새기와들의 유형분류와 양식변천 그리고 편년구분을 시도하였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높이 11.5cm, 중앙부 6cm	 높이 7.5cm, 중앙부 4cm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높이 10cm, 중앙부 6cm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높이 9cm, 중앙부 5cm		 너비 35cm, 높이 9cm 중앙부 4.2cm	 높이 9cm, 중앙부 4.5 cm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길이 28cm, 중앙부 2.5cm	 높이 7.2cm, 중앙부 4.2cm	 너비 32cm, 높이 7.8cm 중앙부 3cm	 높이 7.6cm, 중앙부 5cm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너비 38cm, 높이 9.3cm 중앙부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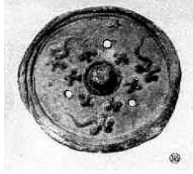
<그림 24>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암막새-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막새지름 17cm	
<사진 25>	<사진 26>	<사진 27>	<사진 28>
	 막새지름 19cm		 막새지름 16.5cm
<사진 29>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막새지름 17.7 cm			

<그림 25>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대형 수막새-

<사진 33>	<사진 34>	<사진 35>	<사진 36>
	 막새지름 12.9cm		 막새지름 11cm
<사진 37>	<사진 38>	<사진 39>	<사진 40>
	 막새지름 15.5cm		
<사진 41>	<사진 42>		
	 막새지름 12cm		

<그림 26>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소형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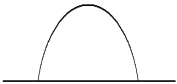
<사진 43>	<사진 44>	<사진 45>	<사진 46>
 막새지름 18.9cm	 국립 112	 삼도 345	
<사진 47>	<사진 48>		
			

<그림 27>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수막새기와 -부속부 운문-

2) 유형 재분류

본 장에서는 앞의 日暉文 막새에서 살펴본 황룡사지 발굴보고서와는 다른 기준과 시각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의 황룡사지 발굴보고서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는 日暉文 막새기와의에 대한 기술이나 구분에 있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日暉文 막새기와의 막새면 가운데서 막새면의 중앙부인 日暉文 부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분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분류를 통하여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을 파악해보고 편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표 9> 日暉文 막새기와의 구분 기준

중앙부	日暉文	日暉文의 크기: 대형, 소형
	돌을띠	돌을띠의 숫자: 0 ~ 3개 돌을띠의 크기: 가는선(細線), 굵은선(太線)
	日暉文 + 돌을띠 단면형태	중앙부(日暉文+돌을띠) 단면형태: 單獨形, 平斷形, 層斷形  단독형  평단형  층단형 1  층단형 2
주연부		돌을띠의 有・無 돌을띠의 형태: 面形, 線形 막새턱의 문양: 素文 또는 聯珠文 막새턱의 형태: 面形, 線形
부속부		素文, 雲文, 花文 등

본 연구에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日暉文의 크기를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었다.⁸⁵⁾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형태에 따라서는 日暉文 주위에 돌을띠가 없는 單獨形, 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이 평단면을 이루는 平斷形, 그리고 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이 層을 이루는 層斷形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연부는 돌을띠의 유·무와 막새턱면의 형태에 따라 面形, 線形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 日暉文 막새 기와의 분류에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인 단면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다.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단면형태의 특징은 막새의 중심부(日暉文+돌을띠)가 평단형보다는 대부분이 층단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부가 돌을띠가 없는 單獨形의 경우에는 암막새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는 중심부의 단면형태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 양식적인 차이를 파악하는데 좋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28>에서 보듯이 日暉文 수막새의 평단형과 층단형1은 중앙부가 다른 수막새에 비해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수막새 층단형2와 암막새 층단형2는 중앙부의 형태가 앞의 유형에 비해서 매우 퇴화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부 단면형태의 차이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이 퇴화하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태양 또는 연화를 상징하는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가 원래의 상징성을 점차 잃어버림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85) 김성구, 앞의 책, 1992, p18.에서는 수막새를 기준으로 지름이 10cm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소형막새로 보고 있으며 그 사용처를 활주 위의 차양용 또는 건물 내부의 단집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문환, 앞의 논문, 2005, p.6에서는 수막새를 기준으로 대형은 막새면의 지름이 14cm, 중형은 13~14cm, 소형은 13cm이하로 구분하였으며, 대형과 중형은 수치상의 구분으로 건물지의 규모나 용도에 따른 구별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황룡사지 보고서는 막새기와 日暉文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정확한 수치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조사한 결과 수막새의 경우 지름이 15cm 내외가 대형과 소형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수 막 새	평단형		
	층단형 1		
	층단형 2		
암 막 새	층단형 1		
	층단형 2		
	단독형		

<그림 28>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평면과 단면형태-

본 연구에서는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체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막새면의 문양 등에 따른 차이를 제작시기에 따른 차이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를 세밀한 차이에 따라 유형분류를 시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황룡사지의 경우 암막새는 33종, 수막새는 3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황룡사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된 시기가 130년 정도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황룡사 건물과 지붕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2세기에서 13세기 고려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이 분명한 日暉文 막새기와는 시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양식적 차이가 있었을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황룡사지에서는 약 130년 동안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1) 암막새

황룡사지에서는 출토된 日暉文 암막새기와의 수가 1,968점 33종⁸⁶⁾에 달하지만 상당부분 파편으로 발굴되어 일정한 기준으로 막새기와의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암막새기와는 <표 10>과 같이 日暉文의 크기, 日暉文 주변 돌을띠의 숫자와 형태, 주연부의 유무와 형태, 그리고 막새턱의 형태와 문양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8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p. 132.

<표 10> 日暉文 암막새기와 형식 분류표 -부속문이 있는 막새기와 제외-

중앙부 (日暉文+돌을띠) ①	중앙부 (日暉文+돌을띠) 단면형태 ②	주연부 돌을띠 유·무 ③	막새턱의 형태 ④	유형	비고
대형 (중앙부 크기가 5cm 이상)	1. 평단형	1. 유	1. 선형	日暉文 대-2-1-1-a (대형+충단형+유+선형)	日暉文이 반구형
	2. 충단형			日暉文 대-2-1-1-b (대형+충단형+유+선형)	日暉文이 납작하거나 불록함
	3. 단독형	2. 무	2. 면형	日暉文 대-1-2-2 (대형+평단형+무+면형)	
				日暉文 대-2-2-2 (대형+충단형+무+면형)	
				日暉文 대-3-2-2 (대형+단독형+무+면형)	
소형 (중앙부 크기가 5cm 이하)	1. 평단형	1. 유	1. 선형	日暉文 소-2-1-1-a (소형+충단형+유+선형)	막새면 日暉文 3개(a)
	2. 충단형	2. 무	2. 면형	日暉文 소-2-1-1-b (소형+충단형+유+선형)	막새면 日暉文 2개(b)
				日暉文 소-1-2-2 (소형+평단형+무+면형)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암막새의 유형분류는 다음 <표 11>과 같다. 먼저 日暉文 암막새의 유형분류는 중앙부(日暉文+돌을띠)의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암막새의 경우 중앙부의 크기가 5cm가 넘는 것을 대형으로 분류하고 5cm가 넘지 않은 것을 소형으로 분류하였다. <사진 3>, <사진 8>, <사진 9> 그리고 <사진 13>은 중앙부의 크기가 5cm가 넘는 대형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진 14>, <사진 15> 그리고 <사진 16>은 중앙부의 크기가 5cm이하로 소형에 해당한다.

중앙부의 단면형태에 따르면 <日暉文 대-2-1-1-a>에 해당하는 <사진 1>은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형태가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 선형 돌을띠와 막새턱을 이루고 있다. <日暉文 대-2-1-1-b>에 해당하는 <사진 3>을 <사진 1>과 비교하면 日暉文이 대형인 점과 주연부에 선형의 돌을띠를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중앙부의 日暉文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1>은 日暉文이 전형적인 반구형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서 <사진 3>는 日暉文 부분이 정선되어 있지만 납작한 특징을 하고 있다.

<日暉文 대-1-2-2>의 <사진 10>과 <日暉文 대-2-2-2>의 <사진 8>과 <사진 9>는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 유형은 앞의 <日暉文 대-2-1-1>과 비교하면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발달정도가 약화되고 주연부 돌을띠가 생략되는 특징이 있다.

앞의 유형과는 달리 중앙부에 돌을띠가 없이 日暉文만 나타나고 주연부 돌을띠도 사라진 매우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사진 11>과 <사진 13>있으며 <日暉文 대-3-2-2>로 분류하였다. 특히 <사진 11>과 <사진 13>는 日暉文 주변에 돌을띠가 없을 뿐 아니라 日暉文의 양감이 매우 적고 조잡한 느낌이 들어 시기적으로 다른 日暉文 막새기와에 비해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그림 28>을 참고로 비교하면 중앙부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日暉文이 소형인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日暉文 소-2-1-1-a>는 日暉文이 막새면에 3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면서 주연부에 돌을띠가 나타난다. <日暉文 소-2-1-1-b>는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 돌을띠가 등장하지만 日暉文이 2개이다. 그리고 중앙부

(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이면서 막새턱은 넓게 표현된 것을 <日暉文 소-1-2-2>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속부에 부속문이 있는 것을 <기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은 日暉文을 중심으로 1줄의 선형 돌을띠를 두고 부속부에 당초문 또는 운문이 나타난다. <사진 20>은 日暉文 좌우에 화려한 당초문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사진 21>과 <사진 22>는 운문을 부속문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진 22>는 <사진 21>에 비해서 막새면에서 日暉文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속문 또한 量感이 강조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분류 -암막새-

유형		특징	도판
대형 日暉文	日暉文 대-2-1-1-a	대형 日暉文이 반구형이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이고 돌을띠가 2개 이상 발달하였으며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1>
	日暉文 대-2-1-1-b	대형 日暉文이 낮거나 불룩하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이 3층의 이상의 층단형이며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3>
	日暉文 대-1-2-2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이며 막새턱은 넓고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는 경우	 <사진 10>
	日暉文 대-2-2-2	대형 日暉文이 있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며 솟은 형태이고 막새턱 면은 넓게 발달하였으며 주연부 돌을띠가 없는 경우	 <사진 8>  <사진 9>
	日暉文 대-3-2-2	중앙부가 單獨形으로 층단형 또는 평단형 이루지 않고 대형 반구형 日暉文만 있으며, 막새턱은 素文 또는 聯珠文이고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는 경우	 <사진 11>  <사진 13>
소형 日暉文	日暉文 소-2-1-1-a	소형 日暉文을 중앙에 두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3층의 층단형을 이루며 주연부에는 굵은 주연부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17>
	日暉文 소-2-1-1-b	소형 日暉文을 중앙에 두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2단의 층단형으로 표현되어 2개 배치되어 있고 주연부에 굵은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14>
	日暉文 소-1-2-2	소형 日暉文을 중앙에 두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이며 돌을띠가 2줄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막새턱 면은 넓게 표현한 경우	 <사진 16>
기타		日暉文을 가운데 두고 1줄의 돌을띠를 배치하였으며 좌우의 부속부에 당초문 또는 운문 등이 표현된 경우	 <사진 20>  <사진 21>  <사진 22>

(2) 수막새

앞에서 살펴본 암막새와 마찬가지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수막새기와는 <표 1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분류의 기준은 日暉文의 크기-대형과 소형-와 중앙부(日暉文+돌을띠)의 단면형태, 돌을띠의 숫자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연부 돌을띠의 유·무 그리고 막새턱의 형태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12> 日暉文 수막새기와 형식분류표 -부속문이 있는 막새기와 제외-

日暉文 크기 ①	중앙부 (日暉文+돌을띠) 단면형태 ②	주연부 돌을띠 유·무 ③	막새턱 형태 ④	유형	비고
대형 (지름 15cm이상)	1. 평단형	1. 유	1. 선형	日暉文 대-1-1-1 (대형+평단형+유+선형)	
				日暉文 대-2-1-2 (대형+충단형+유+면형)	
	2. 충단형	2. 무	2. 면형	日暉文 대-2-2-2-a (대형+충단형+무+면형)	부속부 돌을띠(a)
				日暉文 대-2-2-2-b (대형+충단형+무+면형)	부속부에 돌을띠가 없는 경우(b)
소형 (지름 15cm이하)	1. 충단형	1. 유	1. 선형	日暉文 소-2-1-1-a (소형+충단형+유+선형)	부속부 돌을띠(a)
				日暉文 소-2-2-2-b (소형+충단형+무+면형)	주연부 溝狀圈帶(b)
	2. 충단형	2. 무	2. 면형	日暉文 소-2-2-2-c (소형+충단형+무+면형)	중앙부 돌을띠 넓은 면형(c)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수막새에 대한 분류는 암막새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1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日暉文의 크기에 따라 대형 日暉文과 소형 日暉文으로 나눌 수 있다. 日暉文 수막새 기와의 직경을 기준으로 15cm이상인 것을 대형으로 15cm미만인 것을 소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는 지름이 15cm 이상이며 중앙부의 크기 또한 5cm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日暉文 대-1-1-1>에 해당하는 <사진 23>은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에 대형의 日暉文이 배치되어 있고 돌을띠가 선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日暉文 대-2-1-2>에 속하는 <사진 21>은 대형의 日暉文이면서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에서 日暉文이 편평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日暉文은 주위의 돌을띠와 함께 층단형을 이루며 막새턱과 주연부는 넓은 면형을 이루고 있다.

<日暉文 대-2-2-2-a>에 해당하는 <사진 26>은 대형의 日暉文이 있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는 층단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부속부에는 선형의 돌을띠가 있으나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고 막새턱은 면형을 보이고 있다. <日暉文 대-2-2-2-b>로 분류하는 <사진 28>과 <사진 29>는 日暉文이 대형이면서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으며 막새턱은 면형을 보이고 있다.

<日暉文 대-2-2-2-b> 가운데서 <사진 28>과 <사진 29>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사진 28>의 중앙부가 <사진 29>에 비해 매우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사진 28>은 日暉文과 돌을띠가 뚜렷하고 크게 발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진 29>는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가 뚜렷하게 퇴화된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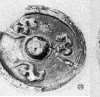
한편 소형 日暉文 막새기와는 日暉文의 크기가 15cm이하로 작으며 그에 따라 중앙부의 크기 또한 대체로 5cm이하로 작게 특징을 보인다. <日暉文 소-2-1-1-a>에 해당하는 <사진 34>와 <사진 36>은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며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진 34>는 중앙부가 뚜렷하게 발달하였으며 주연부에도 2줄의 돌을띠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사진 36>은 중앙

부의 日暉文 단면형태가 뾰족하며 중앙부의 돌을띠가 <사진 34>에 비해 희미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日暉文 소-2-2-2-b>로 분류하는 <사진 37>의 유형은 소형의 日暉文 막새기와의에 속한다. 이 막새기와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주연부에 溝狀圈帶가 나타나는 점이다. <日暉文 소-2-2-2-c>는 <日暉文 소-2-2-2-b>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소형의 日暉文 주변에 층단을 이루는 돌을띠가 넓은 面像을 이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로 분류한 유형이 있다. 이들 유형은 막새면의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이루며 부속부에는 부속문으로 운문 등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사진 43>은 중앙부에 日暉文과 선형의 돌을띠가 있으며 6개의 화문과 3개의 운문이 주연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은 부속부에 부속문으로 운문만 배치되어 있는 (부속부 운문) 日暉文 막새기와의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3> 日暉文 막새기와 유형분류 -수막새-

유형		특징	도판
대형 日暉文	日暉文 대 1-1-1	대형 日暉文이 반구형이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이루며 돌을띠가 2개 이상 배치되어 있고 주연부에는 선형의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23>
	日暉文 대 2-1-2	대형 日暉文이 낮고 편평하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이 3층의 층단형의 형태를 이루고 막새턱과 주연부 돌을띠가 넓은 경우	 <사진 21>
	日暉文 대 2-2-2-a	중앙부(대형 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을 이루지만 가장자리의 돌을띠가 선형을 보이고 막새턱은 넓지만 주연부 돌을띠는 생략된 경우	 <사진 26>
	日暉文 대 2-2-2-b	중앙부(대형 日暉文과 돌을띠)가 3층의 층단형을 이루며 솟은 형태로 주연부 돌을띠는 생략되었으며 막새턱은 넓은 경우	 <사진 28>  <사진 29 >
소형 日暉文	日暉文 소 2-1-1-a	日暉文이 소형이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2~3단의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는 굵게 표현된 주연부 돌을띠가 있는 경우	 <사진 34>  <사진 36>
	日暉文 소 2-2-2-b	日暉文이 소형이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3단의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는 溝狀圈帶가 있는 경우	 <사진 37>
	日暉文 소 2-2-2-c	日暉文이 소형이며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2단의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는 소문의 막새턱이 있는 경우	 <사진 38>
기타		막새면의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이루며 日暉文과 주연부 사이에는 부속문으로 운문 등이 표현된 경우	 <사진 43>  <사진 46>  <사진 48>  <사진 47>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가운데 日暉文 막새기와가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다. 日暉文 막새기와에서 막새면의 크기와 문양이 거의 동일하면 동일한 시기와 건물에 사용된 막새기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암·수막새기와가 조합을 이루었을 것으로 확실한 대형·소형·(부속부 운문) 日暉文 막새기와는 다음 <표 14>와 같다. 그러나 이외의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서 파편으로 출토된 것들이 상당수 있어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막새기와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9>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다음 <그림 29>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日暉文 암수막새기와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암기와와 경우 막새면에 2개의 日暉文이 2층의 층단형의 이루고 주연부에는 선형의 돌을띠가 나타난다. 그리

고 수막새의 경우에도 막새면의 중앙에는 큼지막한 日暉文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2줄의 굵은 돌을띠가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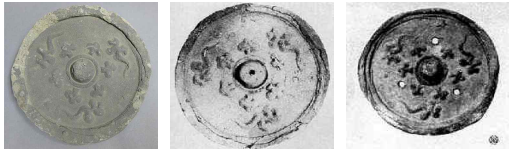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 <사진 21>과 <사진 3>은 다른 유형에 비해 반구형의 형태가 비교적 낮고 평탄하다. 그리고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띠고 있으며 주연부에는 돌을띠와 막새턱이 있다.

소형 日暉文 막새기와 가운데는 <사진 37>과 <사진 16>이 대표적으로 조합을 이루는 막새기와이다. 이들 日暉文 막새기와는 소형의 日暉文으로 층단형을 이루며 주연부에 구상권대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운문을 부속문으로 하는 日暉文 막새기와는 막새면의 문양에서는 거의 같다. 즉 이들 막새기와들은 日暉文을 중앙에 두고 주변에 1줄의 돌을띠가 나타난다. 그리고 부속부에는 6개의 화문이 있고 그 외곽에는 3개의 운문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들 막새기와들은 단일건물의 지붕에서 다

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진 43>은 막새면에 구멍이 없으나 <사진 44>는 중앙의 日暉文 부분에 구멍이 하나 <사진 48>은 부속부에 3개의 구멍이 있어 椽木瓦와 附椽瓦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14> 日暉文 막새기와 조합표

구분	수막새	암막새	비고
대형 日暉文	 <사진 21>	 <사진 3>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낮고 편평하며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는 돌을띠와 막새턱이 있음
소형 日暉文	 <사진 37 >	 <사진 16> 높이: 7.6cm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이루고 주연부에는 구상 권대가 있음
(부속부 운문) 日暉文	 <사진 48>	 <사진 20>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이루고 부속문으로 수막새는 운문이 3개, 암막새는 2개 배치되어 있음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으며 막새턱은 면형을 띠고 있음
	 <사진 46>	 <사진 18>	위의 <사진48>, <사진 20>과 비교하면 같은 유형이나 운문의 양감과 구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부속부 운문) 日暉文	 <사진 43> <사진 44> <사진 48>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이룸 日暉文 주위의 돌을띠가 선형 부속부에는 6개의 화문과 3개의 운문이 있음 막새턱은 면형을 이룸

3.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과 편년시도

1) 양식변천

경주지역 사찰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에 대한 고찰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출토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귀목와의 유행시기가 매우 짧아 양식이나 제작기법 등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출토된 막새기와의 대부분 교란층에서 출토되어 층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양식변천을 추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日暉文 막새기와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양식의 변천을 가늠할 수 있을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특히 銘文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14세기 초 이후의 것으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룡사와 파주 혜음원지에서는 12세기 초에 사찰이 창건 또는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12세기 초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행하던 초기의 기록들로 이 두 사찰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황룡사와 파주 혜음원지 두 사찰에서 출토된 유사 양식의 日暉文 수막새기와의 황룡사에 처음으로 사용된 日暉文 막새기와의로 추정하고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 및 편년 시도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 과정을 파악하기 용이한 대형수막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형막새기와의 양식변천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암막새

다음 <표 15>는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암막새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5> 日暉文 암막새 변천과정 -대형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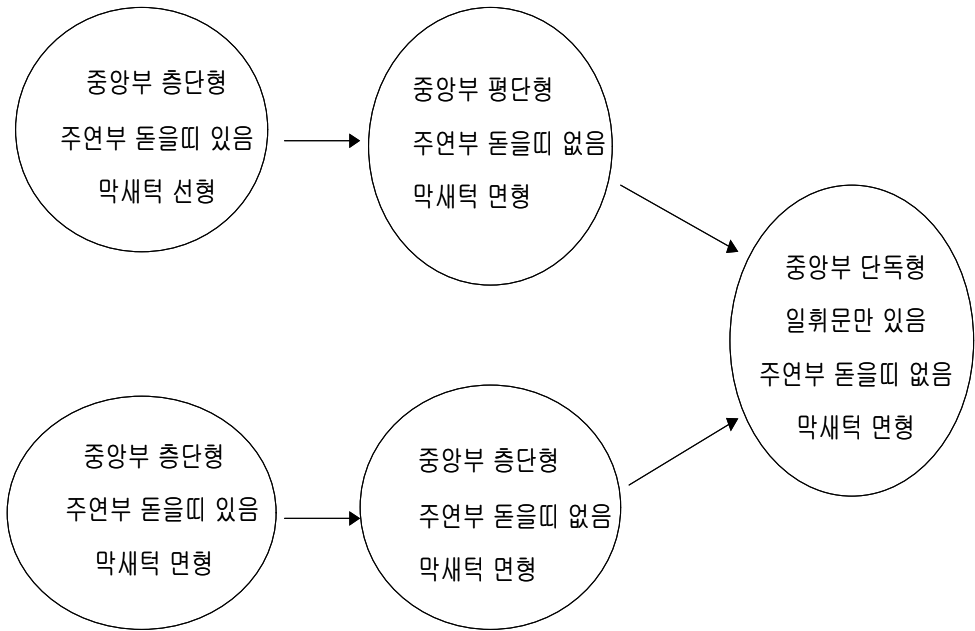
구분	평단형	비고	층단형	비고
1단계		반구형 日暉文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 주연부에 선형 돌을띠가 있음		중앙부(日暉文과 원권)가 층단형 주연부에 선형 돌을띠가 있음
2단계		중앙부(日暉文과 원권)가 평단형 막새턱은 면형 주연부에 돌을띠가 없음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 막새턱 면은 면형 주연부에 돌을띠가 없음
3단계			중앙부에 單獨刑 日暉文만 있음 막새턱은 소문 또는 연주문이 있음 주연부에 돌을띠가 없음 막새턱은 면형	

이와 같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과정을 <표 16>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중앙부가 층단형이면서 주연부에 돌을띠가 있고 선형 또는 면형의 막새턱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선행하는 양식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 또는 층단형에 관계없이 주연부의 돌을띠가 소멸되고 막새턱은 면형으로 획일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중앙부에서 돌을띠가 소멸되어 單獨刑의 日暉文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으며 막새턱은 면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과정 모식도 -대형 암막새-



(2) 수막새

다음의 <표 17>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수막새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7> 日暉文 암막새 변천과정 -대형수막새-

구분	평단형	비고	층단형	비고
1단계		막새면의 중앙에 반구형 日暉文이 있음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을 보임 주연부 돌을띠가 선형을 나타냄 막새턱 선형의 을 나타냄		막새면의 중앙에 편평한 日暉文이 있음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보임 주연부의 돌을띠가 면형을 나타냄 막새턱이 면형을 나타냄
2단계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을 보임 부속부에 선형의 돌을띠가 있음 주연부에는 돌을띠 없음 막새턱이 면형을 나타냄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 층단형을 보임 주연부에는 돌을띠 없음 막새턱이 면형을 나타냄
3단계			앞의 단계에 비해 중앙부의 크기 감소함 중앙부가 층단형을 보임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음 막새턱이 면형을 나타냄	

이와 같은 日暉文 수막새기와의 변천과정을 <표 18>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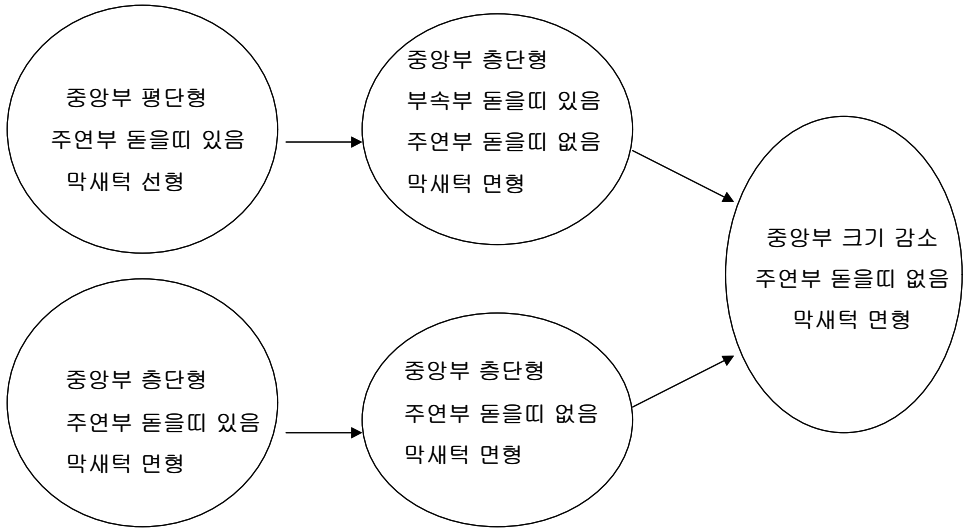
먼저 日暉文 수막새기에서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과 층단형인 단면형태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유형은 중앙부가 매우 정선되었으며 주연부에 돌을띠가 있는 유형으로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중앙부의 단면형태가 층단형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부속부에만 돌을띠가 나타나는 유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막새턱 부분은 모두가 면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 단계로는 중앙부의 크기가 앞 단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연부에도 돌을띠가 사라지며 막새턱은 면형을 이루는 판단한다.

이와 같이 日暉文 수막새기와의 주연부의 돌을띠는 처음에는 있는 상태에서 후기에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막새턱 부분에서도 초기에는 선형과 면형형태를 함께 가지고 있다가 면형의 막새턱으로 획일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8>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과정 모식도 -대형 수막새-



이상과 같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체적인 변천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가 강조되는 형태에서 약화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의 양식에는 주연부에서 돌을띠가 출현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日暉文 막새기와 양식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에서 단순화 또는 퇴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이 단순화 또는 퇴화되는 원인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지니는 상징성인 연화 또는 태양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어 간 것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고 도식적인 것으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편년시도

앞에서 살펴본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의 어느 정도의 양식적 변천하면서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12세초에서 13세기 초반까지 황룡사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앞에서도 밝혔듯이 고려시대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입 시기는 1105년경 황룡사의 중건시기를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日暉文 막새기와의 소멸시점을 몽고의 침입으로 황룡사가 소실되는 1238년으로 상정한다면 약 130년 동안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황룡사지 발굴결과 정확한 편년에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명문막새기와 등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식적 변천을 토대로 편년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황룡사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의 사용된 시기가 비교적 뚜렷하고 日暉文 막새기와의 소멸시기도 확실한 가운데 시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와의 평균수명이 약 30~50년 정도 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3차례에서 5차례 정도의 황룡사지 건물의 지붕기와의에 대한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을 편년시도에 참고로 하였다.

먼저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은 <그림 3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진 1>과 <사진 3> 그리고 <사진 23>와 <사진 21>과 같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고려시대 12세기 초 황룡사에서는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들 日暉文 막새기와의들은 다른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들과 비교하면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가 상당히 뚜렷하게 발달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日暉文 막새기와의와는 다르게 부속부와 주연부의 돌을띠가 모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日暉文 막새기와의들은 日暉文 막새기와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표현하고 있어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의 초기양식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진 23>의 日暉文 수막새기와의와 유사한 막새기와의 파주 혜음원지와 고려 궁성에서도 확인이 되어 12세기 초 황룡사 중건 당시에 사용된 막새기와의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日暉文 막새기와의가 황룡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에는 보다 단순화된 日暉文 막새기와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암막새의 경우 <사진 8>과 <사진 9>와 같이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 11>과 <사진 12>가 출현하는 시기에 이르면 중앙부에는 돌을띠가 없이 단독형의 日暉文만 나타나고 있다.

수막새의 경우에도 <사진 26>와 <사진 28>과 같이 부속부에 돌을띠가 가는 선형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황룡사지 日暉文 수막새기와의 <사진 29>시기에 이르면 중앙부의 크기가 작아지며 주연부 돌을띠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황룡사 日暉文 막새기와의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면서 <사진 11>, <사진 12>, <사진 29>와 같은 日暉文 막새기와의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형 日暉文			
12 세기				
	<사진 1>	<사진 3>	<사진 23>	<사진 21>
				
		<사진 4>		
				
13 세기	<사진 10>	<사진 8>	<사진 26>	<사진 28>
				
		<사진 9>		
				
	<사진 11>	<사진 12>	<사진 29>	

<그림 30>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 편년안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 다음으로 <그림 31>을 참고로 소형 및 부속부에 부속문으로 운문을 배치한 (부속부 운문)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을 시도하고자 한다.

소형 日暉文 막새기와인 경우에는 대형 日暉文 막새기와보다 양식적인 변화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 중앙부의 日暉文과 돌을띠는 대부분 층단형의 형태를 하고 있어 양식적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소형 日暉文 암막새인 경우에는 日暉文의 강조가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5>과 같이 日暉文이 3개 표현되어 日暉文에 대한 상징성을 강하게 표출한 막새기와의 가장 앞선 시기의 것으로 편년하였다.

<사진 34> 소형막새기와의 경우 중앙부의 日暉文이 뚜렷하고 주연부에 돌을띠가 표현되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양식으로 판단하여 12세기 초반으로 편년하였다. 이에 비해 <사진 38>은 日暉文의 퇴화정도가 뚜렷하고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어 황룡사가 소실되는 근접한 시기의 것으로 편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부속부에 운문을 부속문으로 배치한 막새의 경우에는 <사진 43>과 <사진 17>을 가장 선행하는 양식의 막새기와의 편년하였다. 특히 <사진 43>의 (부속부 운문) 日暉文 수막새기와는 <표 14>에서 확인된 <사진 44>와 <사진 48>과 같은 부연 및 연목기와와 동일한 양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용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日暉文 주위에 화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운문이 나타나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같은 유형의 막새기와들이 황룡사지 발굴당시 강당 서편 건물지에서 거의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대량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초 황룡사 중건당시 사용한 이들 유형의 막새기와의 인위적으로 대량으로 폐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사진 19>와 같은 막새기와는 그 다음 시기의 양식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日暉文의 크기가 작아지고 운문의 量感이 매우 줄어드는 <사진 18>을 마지막 단계의 막새기와의 편년하고자 한다.

	소형 日暉文	(부속부 운문) 日暉文
12 세기	 <사진 15>  <사진 34>	 <사진 17>  <사진 43>
	 <사진 14>  <사진 36>	 <사진 19>  <사진 47>
	 <사진 13>  <사진 37>	 <사진 18>  <사진 48>
	 <사진 38>	 <사진 46>
13 세기		

<그림 31> 소형 및 (부속부 운문) 日暉文 막새기와 편년안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막새기와인 日暉文 막새기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고려시대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황룡사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 검토를 위한 전 단계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과 명칭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에 파악하기 위해 중국고대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돈황,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서 日暉文 막새기와와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동심원형태의 연화문 또는 태양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와 고려시대 반구형 연화문 막새기와에서도 日暉文 막새기와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日暉文 막새기와는 귀면와보다는 연화문 또는 태양문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日暉文 막새기와의 명칭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귀목문, 日暉文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귀목문이란 용어대신에 태양 또는 연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日暉文 막새기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日暉文 막새기와의 부분별 명칭에 대해서는 중앙부, 부속부, 주연부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단계로 세분하여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명칭부여를 시도하였다.

셋째, 日暉文 막새기와의 전국현황에 대해서 日暉文 막새기와는 12세 초부터 전국적인 분포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日暉文 막새기와는 막새면이 다른 막새기와에 비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日暉文 막새기와가 지역적으로 인접한 개성 궁성, 안성 봉업사지, 파주 혜음원지에서 매우 유사한 양식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고려궁성, 파주 혜음원지, 황룡사지에서도 유사한 양식의 日暉文 막새기와를 확인하였다.

넷째, 경주지역의 발굴조사결과 고려시대의 日暉文 막새기와가 10여 곳 이상의 사찰에서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도 경주지역에서는 사찰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日暉文 막새기와가 생

산되고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고려시대 경주지역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에서 출토된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분류, 양식변천, 편년시도 등을 하였다. 먼저, 고려시대 황룡사는 경주지역의 중요 사찰로 계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있었음을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량 출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룡사지 日暉文 막새기와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출토 막새기와의 폐와무지나 교란층에서 확인되어 정확한 편년을 확인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황룡사지 발굴보고서에 나타난 日暉文 막새기와의 유형을 새롭게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황룡사지 발굴보고서를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에 있는 日暉文 막새기와의 열람하여 실측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유형분류와 양식변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끝으로는 고려시대 日暉文 막새기와의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2초부터 몽고군에 의해 소실되는 13세기 초반까지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편년을 시도하였다.

먼저 이 같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연구를 위한 前 단계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대한 유형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日暉文의 크기(대형과 소형),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의 단면형태(평단형, 층단형, 단독형)으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연부는 돌을띠의 유·무와 막새턱의 형태(면형과 선형)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구분을 하였다.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부분도 참고로 하였다.

그 결과 日暉文 암막새 기와는 대형 日暉文 암막새기와 5가지 유형, 소형 日暉文 암막새기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日暉文 수막새 기와는 대형 日暉文 수막새기와 4가지 유형, 소형 日暉文 수막새기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같은 유형분류를 토대로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의 양식변천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형 日暉文 암막새기와의 경우에는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층단형이면서 주연부에 돌을띠가 있고 막새턱이 면형인 막새기와의 가장 선행하는 양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을띠가 없이 단독형의 日暉文만 남고 주연부 돌을띠가 없으며 막새턱은 면형인 유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대형 日暉文 수막새기와는 중앙부(日暉文과 돌을띠)가 평단형 또는 층단형이면서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있는 유형을 선행양식으로 보았다. 그 이후의 日暉文 막새기와에서는 중앙부가 층단형이고 주연부에는 돌을띠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日暉文 막새기와의 변천경향을 정리하면 日暉文 막새기와는 중앙부와 주연부 부분에서 돌을띠 등이 나타나는 유형에서 돌을띠가 줄어들거나 사라져 막새면이 더욱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같이 日暉文 막새기와의 문양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띠는 것은 제작기법의 수월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日暉文 막새기와가 본래부터 의미하는 연화나 태양에 대한 의미 또는 상징성이 갈수록 퇴색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고려 궁성, 파주 혜음원지에서도 황룡사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와 거의 유사한 기와가 출토되었다. 특히 황룡사는 1105년에 파주 혜음원지는 1120년경 사찰 중건 및 창건 기록이 있어 두 사찰에서 출토된 유사양식의 日暉文 막새기와를 이 당시의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은 양식의 日暉文 막새기와가 12세기 초 황룡사에서 日暉文 막새기와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편년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황룡사지 출토 日暉文 막새기와에 대한 유형분류, 양식변천과 편년시도는 자료의 제약과 지나친 도식화 또는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황룡사와 日暉文 막새기와에 이해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앞으로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연구과제로는 북한지역의 발굴성과로 日暉文 막새기와의 초기양식에 대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찰별 또는 지역별 단위보다는 전국적인 단위의 日暉文 막새기와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1. 史料

『高麗史』
『東京雜記』
『東文選』
『三國遺事』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2. 單行本

김병준, 『중국고대 지역문화와 군현지배』, 일조각, 1997.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김창호,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이성구, 『中國古代의 呪術的 思惟와 帝王統治』, 1997.
한기문, 『고려사찰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서울대학교 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Ⅳ』, 2000년.
James C.Y. Watt,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The Mertropolitan Museum of Art and London, 2004.

3. 報告書 및 圖錄

江原文化財研究所, 『法泉寺 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002.
_____, 『法泉寺 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003.
경기도 박물관 · 안성시, 『봉업사』, 2002.
경기도 박물관 · 기전문화재 연구원, 『회암사 I』, 2002.
_____, 『고달사지 I』, 2002.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원향사』, 2003.
경주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완공공사보고서』, 197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농업기반공사영덕지부, 『영덕 묘장사지』, 2003.
고려대학교 박물관 편저. 『한국 고대의 Gol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룡사지』, 학술연구총서 22, 1998.

_____, 『경주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38, 2004.

_____,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학술연구총서39, 2005.

_____,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

_____,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 2004.

_____, 『학술연구 심포지엄 논문집 황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감은사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18, 1997.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경주 남산』, 1995.

국립경주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 『신라와전』, 200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彌勒寺 遺跡發掘調査報告書 II』, 1996.

_____, 『彌勒寺 遺跡發掘調査報告書 II-1』, 1996.

국립중앙박물관,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통천문화사, 2002.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시, 『구룡사지』, 1995.

경북대학교 박물관, 한국와전명품백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0.

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 불국사 경내 성묘박물관 건립예정지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 제5책, 200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錫杖寺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4책, 1994.

동아대학교 박물관, 『합천 영암사지』, 198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7.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198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_____, 『미륵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9.

_____,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海外所在文化財調査第5冊, 1994.

부여문화재연구소·익산군, 『獅子庵 發掘調査報告書』, 1994.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라북도, 『만복사』, 1986.

충남대학교박물관·보령시, 『聖主寺』, 1998.

한림대학교박물관·원주시, 『居頓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0.

3. 論文

- 김병희,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 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창호, 「경주출토 후삼국 기와의 역사적 의미」, 『경주문화』 제7호, 경주문화원, 2001.
- 김태근, 「여주 원향사지 출토 막새와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호동, 「나말려초 변혁기의 경주지역」, 『경주사학』 제16집, 1997.
- 김희찬, 「국내성 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 연구-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제19호, 2005.
- 노운상, 「신라시대 연화문수막새 연구-경주지역 사지출토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용운, 「고려전기 경주의 위상에 대한 고찰」, 『경주사학』 제16집, 경주사학회, 1997.
- 박은경, 「고려 와당문양의 편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변상희, 「고려 현종대 불교계의 변화와 그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백종오, 「고구려 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미술사 박사학위논문, 2005.
- 유환성, 「나말려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6.
- 이강근, 「불국사의 불전과 18세기 후반의 재건역」,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제18집, 1997.
- 이경숙,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연화의 양식 특징과 상징성에 관하여」,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 디자인학과 동양화 전공, 2005.12.
-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변화」, 『한국사학보』 제29호, 2007.
- _____, 「고려시대 경주민의 항쟁과 제사」, 『신라문화』 제32집, 2008.
- 이희돈, 「한국귀면와의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임영애, 「중국 고분속 진묘수의 양상과 불교적 변형」, 『미술사논단』 vol 25, 2007.
- 서성호,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서창호, 「고려 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수정, 「이의민의 출신배경과 그 과정」, 『사학연구』 제74집, 2004.

신창수,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편년」,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정병모, 「환문총 벽화에 그려진 동심원문의 상징과 그 의의」, 『선사와 고대』 제23집, 2005.

정성권,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고찰」, 『문화사학』 제19호, 2003.

_____,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서울 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 2003년 4월.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석장사지 출토 평기와를 중심으로-」, 『신라학연구』 제4집, 위덕대학교부설신라학연구소, 2000.

_____, 「경주지역 사찰출토 평와의 수급관계 고찰」, 『불교미술사학』 5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7.

최문환,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정혜, 「고려시대 수막새에 대한 검토, -반구형 자방을 갖는 수막새를 중심으로-」, 『박물관 연구논집』 제2집,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1993.

최태선,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와학회, 2004.

A Study on Hwangyong temple Ilhwi-moon(日暉文) roof-end tiles of koryo dynasty

Kim, Jong Hoon

*Department of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im, Yong Ae)

(Abstract)

In this research, I look out on Ilhwi-moon roof-end tiles from Hwangyong temple Site that stands for roof-end tiles of the Koryo dynasty.

First, I study on the origin and the term of Ilhwi-moon (日暉文) roof-end tiles) And I could study on the origin of Ilhwi-moon (日暉文) roof-end tiles by researching a lot of materials from ancient China to Korea. As a result, it seems to be derived from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and hemisphere in the centre rather than have relation to roof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鬼面瓦).

Second, researchers use a variety of terms of roof-end tiles. But in this study, I use the term lhwi-moon roof-end tiles . I divided the term of each part into centre part(中央剖), attachment part(附屬剖), circumference part(周緣剖). and I tried to make more detailed, systematic terms than existing terms by subdividing it.

Third, I confirmed that lhwi-moon roof-end tiles look widely distributed over the country from the early 12 century. Also, I confirmed these tiles come in many different types in spite of simple design. On the basis of a recent excavation, I found very similar types to lhwi-moon roof-end tiles were used in adjacent areas that are Koyro palace site, Bong - up temple site in Ahn-Sung, and Hyeum-won site in Pa-Ju.

Also, I found very similar design to Ilhwi-moon roof-end tiles in distant areas that are Koryo palace site, Hyeum-won site in Pa-Ju, and Hwangyong temple Site.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Koryo dynasty in Kyong -Ju lhwi-moon roof-end tiles,

Ilhwi-moon roof-end tiles were excavated at more than 10 places in Kyoung-ju. Because of this, I conclude that temples from Koryo Dynasty period in Kyoung-ju last for some time and Ilhwi-moon roof-end tiles were produced and used.

Four, I did type classification, design changes, chronical attemptation of Ilhwi-moon roof-end tiles which is excavated in Hwangyong temple, one of the biggest temples in Kyoung -Ju area. at first, we can know that Koryo dynasty Hwangyong temple has been repaired and preserved by effort as a significant temple in Kyoung-Ju through a bunch of excavated articles.

It is hard to know the exact chronicle of Hwangyong temple Site Ilhwi-moon roof-end tiles because most roof-end tiles are discovered in wastes field or a disturbance layer.

And excavation report is insufficient in analysing patterns of Ilhwi-moon roof-end tiles. So I attempted type classification, design changes and recording chronologically on Ilhwi-moon roof-end tiles written in excavation report.

As a preparatory stage of this research I established type classification standards on Hwangyong temple site Ilhwi-moon roof-end tiles.

At first, I set up type classification in two aspects, 1. size -big, small- 2. a shape of a cross section at centre part - no-story type, story type, and hemisphere type.

And I did type classification of circumference part on the basis of existence of circle line and shape - a face type and line type - of roof-end tile projection.

So in case of convex Ilhwi-moon roof-end tiles I divided 5 types of convex large Ilhwi-moon roof-end tiles and 3 types of small convex Ilhwi-moon roof-end tiles.

And I divided with 4 types of large concave Ilhwi-moon roof-end tiles and 3 types of small concave Ilhwi-moon roof-end tiles in concave Ilhwi-moon roof-end tiles. On the basis of type classification above-mentioned, I searched design changes of Ilhwi-moon roof-end tiles from Hwangryong temple site.

First of all, in case of large convex Ilhwi-moon roof-end tiles, center part is story type and has circle line in circumference part(周緣剖) and I guess that convex roof-end tile whose projection is a face type is the most early style.

And as time goes by, Only convex Ilhwi-moon remains without circle line,

there is no circumference part circle line and I consider roof-end tile projection turns into a face type.

Next, in case of large concave Ilhwi-moon roof-end tiles, I consider the style that center part is no-story type or story type and there is circle line in circumference part is the preceding style. and in case of concave roof-end tiles , I consider center part is story type and there is no circle line.

The way I arrange a change tendency of Ilhwi-moon roof-end tiles is as follows. In case of Ilhwi-moon roof-end tiles, at first, there is circle line in center part and circumference part(周緣剖), but circle line is reduced or lost so I conclude roof-end tile face tend to be more simplified.

Like this tendency of simplified shape of Ilhwi-moon roof-end tiles is caused by improvement of making skill. but the main reason is weakening of symbolic character in Ilhwi-moon roof-end tiles, such as lotus or sun.

At last, tiles which are very similar to roof-end tiles excavated in Hwang ryong temple are discovered in Koryo palace and Hyeum-won, pa ju. Especially there remains a record of repairing in hwangyong temple in 1105 and Hyeum-won, Pa Ju in 1120. Ilhwi-moon roof-end tiles ecavated in two temples are very similar so it is belong to that era. With this reason, I judged that Ilwhi-moon roof-end tiles are used at Hwangyong temple in early 12C for the first time.

This kind of works such as type classification, design changes and recording chronologically has lots of limitation of too much generalization and shortage of materials. But I really hope that I can help you understand Koryo dynasty Hwangyong temple and Ilhwi-moon roof-end tiles.